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상상력의 자유에 관한 고찰

- 칸트의 상상력 개념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 학 과

손 민 주

## 국문 초록

본고는 칸트 철학에서 비체계적으로 서술되는 상상력의 여러 활동들을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그의 철학적 사유에서 상상력의 자유가 갖는 의의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는 궁극적으로 천재에서 발휘됨을, 나아가 『판단력비판』의 기본과제인 감성계와 초감성계의 매개가 이념을 감각적으로 현시하는 천재를 통해 실현됨을 확인하고자 한다.

칸트에 따르면 상상력은 대상의 현전 없이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표상하는 능력으로서, 감성, 지성, 이성, 판단력과 함께 인식능력으로 분류된다.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지성과 감성을 매개함으로써 선험적 인식의 조건을 구성하기도, 지성과 유희함으로써 취미를 판정하기도, 이성과 관계함으로써 숭고판단과 천재의 활동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상력은 주관의 제반 활동에서 불가결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철학 내에서는 상상력에 대한 독립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력은 스스로 법칙을 구성하지 못하는 까닭에 고유한 선험적 원리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상력에 대한 분석은 대상들에 대한 우리 인식의 선험적 방식들을 다루는 비판철학의 기획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험적 원리가 부재하는 덕분에 상상력의 활동영역은 지성처럼 감성계에 제한되거나 이성처럼 초감성계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래 상상력은 감성과 마찬가지로 직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표상들의 소재를 언제나 감관에서 취하며, 이에 따라 경험의 경계 안에서 시작한다. 또한 상상력은 지성개념들과 객관적 합치를 이루어 가능한 경험 내에 머무르기도 하고, 이성이념들을 현시하고자 경험의 한계 너머를 표상하기도 하며, 지성이나 이성과의 결합 없이 홀로 발휘되어 경험의 경계를 지워버리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상상력의 고유성을 선험적 원리의 부재에 따른 자유로움에서 찾은 후, 상상력의 다양한 양상을 상상력이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재생적, 초월적, 미감적, 환상적 상상력으로 분류함으로써 칸트 상상력 개념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재생적 상상력은 경험적 법칙들인 연합 법칙들에 맞추어 대상을 재생하는

능력으로서 경험적 인식을 산출한다. 재생적 상상력은 경험표상을 복제하는데 그치는 까닭에 자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즉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상력이다. 초월적 상상력은 순수 지성개념들에 적합하게 직관을 선험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으로서, 인식의 두 원천인 감성과 지성을 매개함으로써 선험적 인식을 생산한다. 경험에 근거하는 재생적 상상력과 달리 초월적 상상력은 감관을 선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초월적 상상력은 순수 지성개념들에 맞추어 활동함에 따라 선험적 합법칙성의 규제를 받는 자유롭지 못한 상상력이다. 미감적 상상력은 지성이나 이성과 합목적적 관계를 이루는 생산적이고 자기활동적인 능력으로서 취미, 숭고, 천재를 구성한다. 미감적 상상력은 지성개념들의 구속에서 벗어나 직관들을 자유로이 포착하고 종합한다는 점에서 초월적 상상력보다 자유롭다. 하지만 미감적 상상력은 다른 인식능력들과의 관계를 필요조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자유를 구가하지 못한다. 환상적 상상력은 어떠한 규제도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능력으로서 표상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낸다. 환상적 상상력은 가능한 경험의 한계 내에 머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상적 상상력의 활동에서는 어떠한 규칙도 찾을 수 없는 까닭에 그 산물은 광상이나 환상과 같은 비현실적이거나 기괴한 것으로 나타나기 쉽다.

상상력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발휘되는 환상적 상상력은 비판철학 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환상적 상상력만이 독자적으로 유희할 경우 그 산물은 어떤 개념이나 이념과도 관계맺지 않으며, 그런 까닭에 보편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판철학에서 논의되는 상상력이 보편성을 담보하는 인식능력인 한에서, 본고는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를 감성계와 초감성계를 넘나들면서도 이념을 현시하는 천재의 활동에서 찾는다. 천재의 상상력 또한 모든 감관표상들을 자유로이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경험의 한계 너머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환상적 상상력과 유사하다. 그러나 천재의 상상력은 환상적 상상력처럼 무규칙적으로 날뛰는 대신 그 산물과 근저에 놓인 이념과의 부합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천재에서 발휘되는 상상력의 자유는 이성이념들에게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념들의 감성화에 성공한다.

이러한 상상력의 자유가 비판철학에서 중요한 까닭은 감성계와 초감성계의 경계를 지울 수 있는 상상력만이 우리 인식영역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우리 인식의 영역을 지성이 구성하는 감성계와 이성이 관장하는 예지계로 분할한다. 그러나 이 두 관할구역 사이에는 이성과 지성 자체로는 넘어갈 수 없는 간극이 놓여있다. 이로 인해 인식의 체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통일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의 가능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표상들을 자유로이 활용함으로써 미감적으로 이념을 현시하는 천재의 상상력을 통해 실현된다.

이처럼 상상력의 자유는 상상력의 고유성일 뿐만 아니라 천재를 통해 『판단력비판』의 과제인 현상계와 예지계의 매개가 실현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러한 자유는 상상력에게 독자적인 선험적 원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상력의 다양한 활동들을 상상력의 자유에 주목하여 분석한 본고의 논의를 통해 비판철학 내에서 단편적으로 논의되는 상상력의 개념이 근본적인 면에서 일맥상통함이, 나아가 비판철학의 기획에서 상상력이 가지는 중요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칸트, 상상력, 자유, 천재, 이념의 현시, 감성계, 예지계

학 번 : 2013-22792

# 일러두기

본문에서 인용되는 칸트의 주요 저술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Immanuel Kant

KU *Kritik der Urteilkraft* (1790)

KrV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1787)

Anth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1798)

P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1783)

1. 본고에서는 베를린 학술원판에 의거하여 쪽수를 표기하되, 권수는 생략하였다. 『순수이성비판』은 학술원판 제3권과 제4권을 기준으로 초판(1781)은 A, 재판(1787)은 B로 표기하여 쪽수와 병기하였다.

2. 번역은 주로 백종현 역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비판』 (아카넷, 2009), 『순수이성비판1,2』 (아카넷, 2006),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 (아카넷, 2014), 『형이상학 서설』 (아카넷, 2012))을 따랐으나 필요할 경우 수정하였다.

# 목 차

서	론 .....	1
I. 칸트 상상력 개념의 재구성.....		8
1.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 상상력의 기본 규정 .....		8
2. 선험적 원리의 부재: 상상력의 다면성의 근거 .....		11
3. 상상력의 유형 분류 .....		13
II. 규제받는 상상력 .....		20
1. 인식에서의 상상력 .....		21
1) 직관표상을 재생하는 상상력 .....		22
2) 지성에 봉사하는 상상력 .....		26
2. 취미에서의 상상력 .....		30
1) 지성과 유희하는 상상력 .....		30
2) 합법칙성과 합목적성 .....		35
3. 숭고에서의 상상력 .....		40
III. 자유로운 상상력 .....		44
1. 환상적 상상력의 한계 .....		44
2. 천재에서의 상상력 .....		49
3. 미감적 이념의 현시: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 .....		52
결	론 .....	56
참고문헌 .....		59
Abstract.....		61

# 서론

칸트 비판철학에서 상상력은 인식판단과 미감적 판단을 구성하는데 있어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나 상상력의 다양한 활동들은 다른 주관능력들과의 관계 내에서 서술될 뿐 독립적인 이론을 구성하지 않는다. 본고는 칸트 상상력 개념의 다면성이 독자적인 원리의 부재에 따른 자유에 근거함을 드러내고, 상상력의 유형을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그의 철학적 사유에서 상상력의 자유가 갖는 의의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는 궁극적으로 천재에서 발현하며, 『판단력비판』의 기본과제인 현상계와 예지계의 매개가 천재에 의한 미감적 이념의 현시를 통해 실현됨을 확인할 것이다.

칸트에게 상상력은 “대상의 현전 없이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표상하는 능력”(KrV B151)이다. 상상력은 직관을 행한다는 점에서는 감성과 유사하며<sup>1</sup>, 대상의 현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지성과 유사하다. 감성은 객체에 의해 촉발될 경우에만 표상을 갖는 수동적 능력이며 지성은 사유를 통해 인식을 산출하는 능동적 능력이다. 이에 반해 상상력은 대상을 생산적으로 혹은 재생적으로 현시하는 능력으로서 표상과 능동적으로 관계할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관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가적 성격으로 인해 『순수이성비판』에서 상상력은 지성개념들에 적합하도록 직관들을 종합하고 또 이를 통해 인식의 두 원천인 감성과 지성을 매개하는 능력으로 서술된다. 또한 『판단력비판』에서 상상력은 지성과 자유로이 조화함으로써 취미를 혹은 이성과 관계함으로써 숭고나 천재를 구성하는 능력으로 서술된다. 이처럼 비판철학 내에서 상상력은 주관의 제반 활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다. 그럼에도 칸트가 상상력 개념을 독립적

---

<sup>1</sup>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직관은 감성적이기에 지성개념들에 적합한 직관을 제공하는 상상력 또한 “감성에 속한다”(KrV B151). 그러나 표상과 수동적으로 관계하는 감성과 달리, 상상력은 자발적으로 종합을 수행하고 또 “감성을 선형적으로 규정”(KrV B152)한다. 이에 따라 상상력은 감성과 구분되는 능력이다.



장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외이다. 그는 상상력의 활동을 언제나 다른 주관능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편적으로 논할 뿐만 아니라,<sup>2</sup> 상상력의 다양한 양상들을 모두 ‘생산적 상상력’으로 한 데 묶어버린다. 예컨대 『순수이성비판』의 ‘순수지성개념들의 연역’ B판에서 상상력은 자발성의 유무에 따라 생산적 상상력과 재생적 상상력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생산적 상상력은 감성 및 지성과 함께 선험적 인식을 구성하는 필수조건이다. 이와 달리 『판단력비판』에서 생산적 상상력은 지성과 자유로이 유희함으로써 취미판단을 구성하는 능력을 뜻하거나 이성이념을 현시하는 능력으로 서술된다.<sup>3</sup>

칸트의 사유체계에서 상상력에 대한 독립된 이론을 찾을 수 없는 까닭에 칸트의 상상력 개념에 대한 해석들은 준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인식론에 근거하여 상상력을 지성에 복속시키는 입장이다. 둘째는 취미론을 중심으로 상상력과 지성이 맺는 관계를 탐구하는 관점이다. 셋째는 『순수이성비판』을 비롯한 비판철학 저작이 나오기 이전 시기, 이른바 비판 전기(前期)에 해당하는 저서들을 바탕으로 비판철학 내 상상력 개념을 재구성하는 시각이다.

상상력을 지성에 부속시키는 입장은 『순수이성비판』 내 연역론 및 도식론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한다.<sup>4</sup> 여기서 상상력은 인식의 두 원천인

<sup>2</sup> 인식능력들의 선험적 원리들을 다루는 『순수이성비판』에서 감성의 선험적 원리는 ‘초월적 감성학’에서, 지성의 선험적 원리는 ‘초월적 논리학’에서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상상력에는 어떠한 선험적 원리도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인 합목적성을 규명하는 『판단력비판』에서 상상력은 표상들을 쾌·불쾌의 감정과 관계시킴으로써 합목적성 원리를 드러내는 필수요건이다. 그럼에도 상상력의 활동은 취미, 숭고, 천재와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논의된다.

<sup>3</sup> 생산적 상상력의 보다 세부적인 구분은 본고 1장 3절을 참고하라.

<sup>4</sup> 카울바하(F. Kaulbach)와 로젠버그(J. Rosenberg)는 상상력의 종합 활동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지성이라고 해석한다. 프리드리히 카울바하 (백종현 옮김),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파주: 서광사, 1992, 243-245쪽. Rosenberg, J., *Accessing Kant*, Oxford: Clarendon press, 2005, 94-97쪽. 이외에도 페이튼(H. J. Paton)과 유잉(A. C. Ewing)은 『순수이성비판』 연역 A판에서 설명되는 상상력의 종합 활동을 지성이 수행하는 개념적 종합의 한 측면이라 주장한다. Makkreel, R. A., *Imagination and Interpretation in Kant : the hermeneutical import of the Critique of Judgment*,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27쪽 참조.

감성과 지성의 결합을 위해 요청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식은 직관을 제공하는 감성과 개념을 부여하는 지성이 함께 작용해야만 공허하지도, 맹목적이지도 않다.<sup>5</sup> 그러나 현상에 의존하는 직관과 달리 지성개념은 사유에 따른 것인 까닭에 현상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대신 상상력이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춘 매개적 표상, 즉 도식(圖式, Schema)을 제공함으로써 직관과 지성개념은 연결된다. 그리하여 인식판단에서 상상력은 지성개념을 위해 스스로 도식을 산출하고 직관들을 종합함으로써 지성과 객관적으로 합치한다. 이러한 상상력은 지성에 봉사하는 상상력으로서 지성 법칙들의 규제를 받는 자유롭지 못한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지성에 귀속시키는 입장은 상상력이 행하는 종합 활동이 지성개념에 따른다는 점에 근거하여 실제로 종합을 수행하는 능력이 상상력이 아니라 지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상력의 종합활동을 지성에 귀속시키는 경우, 직관들을 자유로이 종합하고 표상을 감정과 관계시킴으로써 미감적 판단력을 구성하는 상상력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칸트가 취미판단에서는 “지성이 상상력에 봉사”(KU 242)한다고 서술할 뿐만 아니라, 숭고판단에서는 “상상력과 이성이 그들의 상충에 의해”(KU 259) 주관적 합목적성을 생성한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할 때, 상상력의 활동이 지성 규칙에 따른다는 설명은 인식론에만 제한될 필요가 있다.

상상력의 역할을 지성과의 합치 방식에만 제한하여 분석하는 입장은 취미론에 등장하는 상상력 개념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상상력과 지성을 대등한 위치에 놓는다는 점에서 첫 번째 입장과 궤를 달리하며, 취미판단의 규정에서 등장하는 상상력과 지성의 주관적 합치를 인식판단에서의 객관적 합치와 비교하는데 주력한다.<sup>6</sup> 상상력이

<sup>5</sup> “내용 없는 사상들은 공허하고, 개념들 없는 직관들은 맹목적이다.” KrV A51/B75.

<sup>6</sup> 상상력의 활동을 도식 산출을 통한 지성과의 합치에만 제한하여 설명하는 학자로는 김상현과 박배형 등이 있다. 김상현, 「칸트 미학에 있어서 감정과 상상력의 관계」, 『칸트연구』, 17집, 2006, 1-26쪽. 박배형,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 『美學』, 53집, 2008년, 27-59쪽. 상상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으로는 김기수가 있다. 그는 취미판단에서의 상상력이 지성과의 조화를 주도하고, 대상의 미적 형식을 포착 및 현시하라는 점에서 미적 상상력을 의사(擬似)상급 인식능력의

인식판단에서는 특정 개념에 적합한 도식의 산출을 통해 지성과 객관적으로 관계한다면, 취미판단에서는 특정한 지성개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지성과 주관적으로 합치한다. 이에 따라 취미판단에서의 상상력은 도식 생산의 기준이 되는 지성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운 능력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성과의 합치 양상에 근거하여 상상력을 해석할 경우 (1) 지성과 합치하지 않으면서 이성과 상충하는 숭고에서의 상상력, (2) 지성개념을 확장하는 천재에서의 상상력, 그리고 (3) 광상과 환상을 생산하는 상상력의 활동을 논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비판철학 체계 전반에 등장하는 상상력 개념을 재구성하는 입장은 비판기 이전에 나온 저서들의 분석에서 시작한다. 가령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이하 『인간학』)에서 상상력은 시작(詩作), 기억, 예견 능력 등의 경험적 활동을 구상하는 능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sup>7</sup> 비판기 이전의 강의록이나 조각글에서 상상력은 구상능력(具象能力, Bildungskraft)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sup>8</sup> 이러한 분석들은 상상력의 경험적, 감성적 측면이 『순수이성비판』, 『판단력비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한다. 그러나 비판전기의 시각에서 상상력을 논할 경우, 비판기의 상상력 개념이 언제나 지성이나 이성과의 관계 내에서 서술되는 근거가 설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현시하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경험 너머의 이성이념과 어떻게 관계맺을 수 있는지가 규명되지

---

로 규정짓는다. 「칸트의 미적 상상력에 대한 고찰」, 『美學·藝術學研究』, 31집, 2010, 297-335쪽.

<sup>7</sup> 뢰르헨(H. Mörchen)은 *Die Einbildungskraft bei Kant*(1970)에서 『인간학』, 『순수이성비판』, 『판단력비판』에서 등장하는 상상력 개념의 총괄적 이해를 시도한다. 그는 칸트 이전에 상상력은 형상화 능력이자 판타지라 간주되었음을 지적한 후 상상력에 대한 칸트의 접근 방식을 심리학적(psychologische)이라 평가한다. 이는 칸트가 초월론적 조건으로서의 상상력에 대해서는 심리학적 성격을 부정했을지라도 재생적 상상력에 주목할 경우 실제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Mörchen, H., *Die Einbildungskraft bei Kant*, Tübingen: Niemeyer, 1970, 1-9쪽.

<sup>8</sup> 맥크릴(R. A. Makkreel)은 바움가르텐의 『형이상학』에서 서술되는 상상력의 구분틀이 비판전기에 해당하는 『인간학에 대한 반성』, 『논리학에 대한 반성』, 『형이상학 강의』에 계승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상력의 형상들을 물질계와 관계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이 구분틀을 비판기에서의 상상력에 적용함으로써 상상력의 감성적 측면 및 현실화 기능을 강조한다. Makkreel(1990), 9-25쪽.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방식은 상상력에 대한 총괄적 이해로 간주되기 어렵다.

앞서의 기획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한계는 상상력의 다면성이 어디에서 비롯하는지를 확인함이 없이 상상력 개념을 설명하려는 점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특유성이 선험적 원리의 부재에 있음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비판철학에서 상상력은 다른 인식능력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선험적인 원리를 갖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부재로 인해 상상력의 활동영역은 지성처럼 감성계에, 혹은 이성처럼 초감성계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래 상상력은 감성과 마찬가지로 직관하는 능력이기엔 표상들의 소재를 언제나 감관들에서 취한다.<sup>9</sup> 이에 따라 상상력은 언제나 경험의 경계 안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상상력은 지성개념들과 객관적 합치를 이루어 가능한 경험 내에 머무르기도 하고, 이성개념들을 현시하고자 경험의 한계 너머를 표상하기도 하한다. 또한 상상력은 지성이나 이성과의 결합 없이 홀로 발휘되어 광상이나 환상을 야기함으로써 경험의 경계를 넘어서기도 한다. 따라서 칸트의 상상력 개념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특징이 선험적 원리의 부재에 따른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상력의 역할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칸트 저작에서 발견되는 상상력의 다양한 양상을 상상력의 자유를 규제하는 원리의 유무 및 종류를 기준으로 재생적, 초월적, 미감적, 환상적 상상력으로 분류함으로써 칸트의 상상력이 어느 정도에서 자유롭고 독자적일 수 있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먼저 『순수이성비판』에서 논의되는 재생적 상상력과 초월적 상상력은 각각 경험적 법칙인 연합법칙과 지성의 선험적 원리인 합법칙성의 제재를 받는

---

<sup>9</sup> 비판전기에 속하는 『인간학』에서 상상력은 “대상의 현전 없이도 직관하는 능력”(Anth 167)이라고 규정된다. 또한 상상력은 우리 감관에 주어진 적이 없던 감관 표상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언제나 “형상들을 위한 소재를 감관들에서”(Anth 168) 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상상력이 활동소재들을 감관에서 취함은 비판기 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상상력은 “잡다의 종합”(KrV A77/B103) 능력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판단력비판』에서는 “(직관 및 직관의 잡다의 합성을 위한) 상상력”(KU 287)이란 구절이 등장한다.

능력으로서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인식론에서 상상력은 지성에 봉사하는 능력으로 비추어진다. 이와 달리 『판단력비판』 내 ‘미감적 판단력의 분석학’에서 상상력은 지성 법칙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능력으로서 취미, 숭고, 천재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력은 언제나 지성 및 이성과 합목적적으로 관계하는 까닭에 독자적으로 자유로운 능력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감적 판단력에서 논의되는 상상력은 선험적 합목적성의 원리 하에서 자유로운 상상력, 즉 미감적 상상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상상력의 독자적인 활동 가능성은 광상과 환상을 생산하는 상상력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상상력은 고유한 선험적 원리를 갖지 않는 까닭에 독자적인 상상력의 활동은 보편성을 담지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다른 능력과 관계맺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에 환상적 상상력이란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상상력의 다른 유형들과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 하에서 본고는 비판철학에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서술되는 상상력 개념이 자유로운 활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 작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상상력의 독자적 활동가능성이 오히려 상상력의 무제한적 활동범위를 드러냄과 동시에 상상력이 언제나 다른 능력과 관계맺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천재에서 상상력의 생산성과 자유로움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칸트 철학에서 상상력의 자유가 갖는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I장은 칸트 상상력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한 개괄적 설명이다. 이 장에서는 상상력의 기본 규정과 특성을 확인한 후 상상력의 다양한 활동들을 종합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제시한다. 먼저 상상력이 인식능력으로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무관한 활동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선험적 원리의 부재에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통해 상상력은 감성계와 초감성계에 걸쳐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고유한 속성으로 가지며, 그 자유가 규제되는 정도에 따라 상상력의 활동 유형이 분류될 수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II장은 본격적으로 비판철학 내에서 상상력의 자유가 규제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상상력은 지성 법칙에 따라 직관을 종합한다는 점에서 합법칙성의 제재를 받는 자유롭지 못한 능력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어서 취미론과 숭고론에서 논의되는 상상력의 자유는 언제나 지성이나 이성과의 합목적적 관계를 내재한다는 점에서 합목적성의 규제를 받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로부터 II장의 논의는 『순수이성비판』과 『판단력비판』에서의 상상력이 다른 인식능력과의 관계를 통해 보편성을 획득함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III장은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가 모든 규칙으로부터 해방된 환상적 상상력이 아닌 미감적 이념을 현시하는 천재에서 발휘됨을 규명함으로써 칸트 철학 내에서 상상력의 자유가 차지하는 의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상상력의 독자적 활동 산물인 광상과 환상은 보편성을 담지하지 못하기에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천재에서 상상력은 창조적인 능력으로서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규칙들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생산적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감관표상들을 활용하여 이념을 감각적으로 현시하는 천재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휘함을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미감적 이념을 생산하는 상상력을 통해 『판단력비판』의 과제인 자연과 자유의 매개가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

# I. 칸트 상상력 개념의 재구성

칸트 철학에서 상상력 개념이 차지하는 위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상상력의 기본 규정과 특성을 살펴본 후 상상력의 다양한 활동들을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비판철학 내에서 상상력은 인식판단 및 미감적 판단의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성, 지성, 이성과 함께 논의된다. 이로 인해 상상력이 갖는 고유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장 1절에서는 『순수이성비판』과 『판단력비판』에서의 상상력 규정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판철학 내에서 상상력은 인식능력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것이다. 2절에서는 상상력이 기타 인식능력들과 달리 비판철학 체계 내에서 독자적인 장을 할애받지 못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하는 근거가 고유한 선험적 원리의 부재에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이로부터 상상력의 고유성은 활동 영역이 특정 구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자유로움’에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3절에서는 상상력의 활동 양상이 지성 법칙에 규제되는 정도, 즉 상상력의 자유가 허용되는 정도와 관계함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상상력의 자유가 규제받는 방식에 따라 그것을 재생적, 초월적, 미감적, 환상적 상상력으로 분류할 것이다.

## 1.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 상상력의 기본 규정

비판철학 내에서 상상력은 초월적 능력, 인식능력 혹은 표상능력으로 규정된다. 먼저 초월적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순수이성비판』에서 다뤄진다. 여기서 상상력은 인식의 두 원천인 감성과 지성의 특성을 모두 함유하는 능력으로 설명되며, 두 원천과 함께 인식의 초월적 조건을 구성한다. 이 때 초월적이란 “선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거나 인식을 선험적으로 사용하는 것”(KrV A56/B80), 다시 말해 경험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도 경험을 가능케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sup>10</sup> 그리하여 지성규칙에

<sup>10</sup> 칸트 철학에서 초월적(transzendental)은 다층적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1) 경험에

맞추어 잡다를 결합하고 재생하는 상상력의 작용은 인식의 두 원천을 매개함으로써 인식 일반의 초월적 근거를 이루며, 이러한 활동은 “상상력의 초월적 능력”(KrV A102)이라 규정된다.

이와 달리 『판단력비판』에서 상상력은 표상을 감정과 연결하는 능력이다. 상상력의 주관 하에 대상의 표상과 쾌의 감정이 관계맺음으로써 대상의 아름다움의 여부, 즉 취미가 판정된다. 쾌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대상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리하여 취미판단은 논리적 인식판단이 아니라 미감적 판단으로 분류된다.<sup>11</sup> 그럼에도 취미판단을 구성하는 상상력은 지성과 함께 ‘인식능력’ 또는 ‘표상력’이라 불린다. 까닭인즉, 대상의 아름다움은 무관심한 흡족에 의해 판정됨에 따라 누구나 그러한 흡족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 전달가능성은 인식과 관계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식은 대상의 표상을 통해 직관의 잡다를 종합하는 상상력과 개념을 산출하는 지성이 합치함으로써 발생한다. 취미판단은 개념이 아닌 감정에 근거하지만, 그 감정은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에서 비롯한다. 이에 따라 취미판단의 보편성은 인식판단과의 형식적 유사성, 즉 상상력과 지성의 합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정리하면, 인식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취미판단에서도 상상력은 주어진 대상의 표상을 통해 지성과 관계하는 인식능력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취미판단에서의 상상력은 개념에 기초하지도, 개념을 지향하지도 않음에 따라 인식산출이라는 목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지성과 주관적으로 합치한다는 점에서 인식판단에서의 상상력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비판철학 내에서 상상력은 표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맺을 수 있는 인식능력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상상력 규정의 단초는 비판전기에 해당하는 『인간학』에서 확인된다. 『인간학』에 따르면 인식능력은 “표상들을

---

선행하는 비경험적인 것이면서도 (2) 초경험적인 것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칸트는 ‘초월적’이란 표현을 경험의 한계 너머의 것을 의미하는 ‘초험적(transzendent)’와 구분한다. 백종현, 『한국 칸트철학 소사전』, 파주: 아카넷, 2015, 95-106쪽 참고.

<sup>11</sup> 미감적이란 “그 규정근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인바(KU 203; 원저자의 강조), 주관의 감정과 관계하는 취미판단은 항상 미감적이다.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마음의 활동”(Anth 140)으로서 표상들의 상태와 마음이 맺는 관계에 따라 지성, 감성, 상상력으로 분류된다.<sup>12</sup>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앞서 설명했던 대로 대상의 현전 없이도 직관하는 능력이며, 직관을 위한 소재를 감성을 통해 주어지는 감관표상들에서만 취한다. 이 때 상상력이 취하는 감관표상들의 종류 및 대상을 현시하는 방식에 따라 생산적 상상력과 재생적 상상력이 구분된다. 전자는 선형적 감성형식인 공간 및 시간 직관들을 이용하여 대상을 근원적으로 현시(現示)하는 능력이며, 후자는 경험했던 직관을 재생시켜 대상을 파생적으로 펼쳐 보이는 능력이다. 『순수이성비판』에서도 자발성을 기준으로 생산적 상상력과 재생적 상상력이 구분된다는 점,<sup>13</sup> 『판단력비판』에서 상상력이 직관과 현시의 능력으로 서술되는 점,<sup>14</sup>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이 대상의 판정과 관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칸트 철학에서 상상력의 기본 규정은 직관과 관계하는 인식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은 인식능력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식능력들인 감성, 지성, 판단력, 이성과 달리 비판철학 내에서 독립적인 부문을 형성하지 못한다. 오히려 비판전기인 『인간학』에서는 28절에서 39절에 걸쳐 별도의 장을 부여받는다. 이는 『인간학』이 인간에 대한 지식을 정리함으로써 “자유로운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무엇을 이루고, 이를 수 있으며, 이루어야만 하는가”(Anth 119)에 관해 답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이를 위해 인식능력,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 그리고 갖은 성격에

<sup>12</sup> 표상들에 의해 주관의 촉발되는 경우 마음은 수동적인 인식능력, 즉 감성에 속한다. 반면 주관의 자발성을 발휘하여 사고하는 경우 마음은 능동적인 인식능력인 지성에 속한다. 감성과 지성은 수동성과 능동성에 근거하여 각각 하위 인식능력과 상위 인식능력으로 분류된다. 상상력은 표상을 경험적으로 재생할 수도, 혹은 경험에 선행하여 현시할 수도 있는 인식능력이다.

다만 『인간학』 A판에서 상상력 절에 대한 제목이 “인식능력에서 감성의 제2장. 상상력에”(A 67)였다는 점, 그리고 상상력이 상위 인식능력이나 하위 인식능력으로 분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상상력의 인식능력으로서의 위상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이 글의 II장 1절에서 다룬 인식 성립의 조건이자 감성과 지성을 매개하는 상상력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소될 것이다.

<sup>13</sup> KrV B152.

<sup>14</sup> KU 287.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총망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학』에서 상상력은 인식 외에도 창작능력, 기억 능력, 예견능력 등 인간의 여러 산물들에 관여하는 활동능력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인간학』에서도 상상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찾기 힘들다. 이에 따라 비판전기에서 논의되는 상상력의 다양한 활동들을 비판철학 내에서의 상상력 규정과 비교하는 것은 상상력의 여러 면모들의 재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본고는 상상력의 다양한 활동들이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서술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상상력의 고유한 선험적 원리의 부재에서 찾고자 한다.

## 2. 선험적 원리의 부재: 상상력의 다면성의 근거

칸트는 상상력에 선험적 원리가 부재함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식능력들의 선험적 원리를 다루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상상력의 장이 따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sup>15</sup> 그리고 직관을 종합하는 상상력의 활동은 “영혼의 맹목적인, 그럼에도 불가결한 한 기능”이라(KrV A78/B103) 규정된다는 점에서 상상력은 스스로 입법하는 능력이 아님이 확인된다. 그리하여 인식론에서 상상력은 지성법칙에 따라 종합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서술된다. 상상력이 스스로 법칙을 구성하지 못함은 『판단력비판』에서도 확인된다. 가령 칸트는 상상력이 “우리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KU 233) 표상을 재생하거나 생산해낸다고 서술하며, 또한 “상상력이 자유롭고 저절로 합법칙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상상력이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KU 241) 주장한다. 이처럼 칸트 철학에서 상상력이 독자적인 원리를 가질 가능성은 부정된다.

그리하여 다른 인식능력들과 달리 선험적 원리가 부재하는 상상력은

---

<sup>15</sup> 인식능력들의 선험적 원리에 관한 분석은 『순수이성비판』의 1 부에 해당하는 ‘초월적 요소론’에서 다루는 내용으로서, 감성의 선험적 원리를 다루는 ‘초월적 감성론’과 지성의 선험적 원리를 다루는 ‘초월적 논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상력의 종합활동은 초월적 논리학 내 연역론과 도식론에서 인식 산출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서술될 뿐, 상상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험적 원리도 초월적 요소론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비판철학 내에서 독립적인 절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는 칸트가 비판철학에서 기획한 바와 관계한다. 그는 세 비판서를 통해 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을 정초하고자 시도하며, 이러한 자신의 기획을 ‘초월철학(Transzendentalphilosophie)’이라 명한다. 여기서 초월적이란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방식을 이것이 선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KrV B25) 것으로서, 이러한 인식들의 체계가 초월철학이다. 그러나 초월철학의 범위가 넓은 탓에 1비판서인 『순수이성비판』은 전체 선험적인 인식들의 골자를 이루는 개념들에 대한 검토는 제외한 채 선험적 종합의 원리들의 분석만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하여 순수 이성이란 어떤 것을 선험적으로 인식하는 원리들을 함유하는 능력으로 규정되며, 인간 인식의 두 줄기인 직관하는 능력인 감성과 판단하는 능력인 지성을 구성요소로 가진다. 감성은 순수 직관의 형식들인 공간과 시간을, 지성은 순수 지성개념들을 선험적 원리로 취한다. 반면 상상력은 영혼의 맹목적이면서도 불가결한 기능인 종합을 수행하는 능력<sup>16</sup>으로서 - 이 종합 활동을 통해서만 감성과 지성이 결합되어 인식이 형성되지만 - 선험적 원리를 갖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상상력은 인식의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능력들의 선험적 원리를 다루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독립적인 부분을 형성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부재 덕분에 상상력은 다른 능력들과 달리 활동범위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sup>17</sup> 본래 상상력은 감성과 마찬가지로 직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대상들의 소재를 언제나 감각들에서 취함에 따라 경험의 경계 안에서 시작한다. 또한 상상력은 지성개념들과 객관적 합치를 이루어 가능한 경험 내에 머무를 수도, 이성개념들의 현시를 위해 경험의 한계 너머를 표상할 수도, 지성이나 이성과의 결합 없이 홀로 발휘되어

<sup>16</sup> “종합이라는 것은, …, 영혼의 맹목적인, 그럼에도 불가결한 한 기능인, 그러나 우리가 드물게 어쩌다 한 번 의식할 뿐인, 상상력의 순전한 작용결과이다.” KrV A78/B103.

<sup>17</sup> 칸트는 철학 일반의 구역들을 우리 인식능력들이 취하는 선험적 개념들 및 원리들에 따라 분할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전체의 인식능력은 자연개념들의 현상계와 자유개념들의 예지계를 관할구역으로 가지며, 지성과 이성이 각각의 구역에서 법칙을 수립한다.

광상이나 환상을 야기함으로써 경험의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로부터 본고는 상상력의 다방면적 활동의 근거를 선험적 원리의 부재에 따른 자유로움에 두고, 비판철학 내에서 논의되는 상상력의 다양한 활동들을 상상력이 자유로운 정도에 따라 분류해 보고자 한다.

### 3. 상상력의 유형 분류

칸트는 경험적 법칙인 연합 법칙들에 따라 대상을 재생하는 재생적 상상력을 제외한 상상력을 모두 “생산적”이란 표현 하에 포섭한다. 그 이유는 첫째 상상력은 현시하는 능력으로서 직관의 잡다를 활용하여 표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며, 둘째 이전에 경험했던 직관을 소생시키는 재생적 상상력의 경우를 제외하면 상상력은 언제나 자발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식, 취미, 숭고, 천재, 광상, 환상을 생산하는 상상력은 모두 생산적 상상력이라 불린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서 상상력의 생산성은 동일하게 발휘되지 않으며, 그 다종다양함은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하는 원리 및 상상력이 다른 인식능력들과 맺는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준해 상상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구분은 상상력의 자유에 한계가 부여되는 정도와 상응한다.

규제 원리	연합 법칙	선험적 합법칙성	선험적 합목적성	원리의 부재
상상력의 분류	재생적 상상력	초월적 상상력	미감적 상상력	환상적 상상력
산출물	경험적 인식	선험적 인식	취미<숭고<천재	광상, 환상

상상력의 유형들을 상술하기에 앞서, 본고에서 분류하는 상상력의 자유는 상상력의 제반 활동에 대한 지성의 구속 정도와 관계한다.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다. 이와 달리 칸트는 자유를 한 상태를 “절대적으로 시작하는 능력”으로(KrV A445/B473) 규정한다. 시초로서의 자유는 그것에 선행하는 상태와 어떠한

인과적 관계도 맺지 않는 상태로서, 법칙들에 따르는 자연<sup>18</sup>에서 찾을 수 없는 “공허한 사유물”(KrV A447/B475)이다. 따라서 칸트 철학에서 자유 개념은 자연의 법칙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것, 즉 초월적 이념이다. 마찬가지로 『판단력비판』 서론에 첨부된 표에서도 자유는 초감성계와 관계하는 이성의 적용대상으로 분류된다.<sup>19</sup>

주목할 점은 『판단력비판』에서 논의되는 상상력의 자유는 이념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지성규칙에 의한 속박여부, 즉 사전적 의미의 자유와 관계한다는 사실이다. 취미판단을 구성하는 상상력은 대상의 인식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로이 유희”(KU 217)하는 능력이다. 그리하여 취미론에서 상상력은 대상의 일정한 개념을 구성하는 지성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송고론에서는 상상력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송고판단에서의 상상력 또한 지성개념에 구속 받지 않음을 다음의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숭고한 것의 한 종류인 ‘단적으로 큰 것’을 판단하는 경우, 상상력은 그 크기를 수학적 단위를 통해 지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 자체를 확장함으로써 “크기의 척도를 주관 안에서 찾는다”(KU 250). 이에 따라 송고판단의 상상력 또한

<sup>18</sup> 칸트 철학에서 자연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들의 총괄, 다시 말해 모든 현상들의 총괄이자 가능한 경험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자연을 이루는 현상들은 보편적 법칙들에 따르는 것이며, 이 법칙들은 지성이 자연에 부과한 것이다. 『순수이성비판』의 연역론은 이러한 지성의 법칙들, 즉 지성개념들이 어떻게 현상들의 총괄인 자연에게 선험적 법칙들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다루고 있다. KrV B163-165.

<sup>19</sup> 상위 영혼 능력들의 표 (KU 197)

마음의 전체 능력	인식능력(E1)	선험적 원리	적용대상
인식능력(E2)	지성	합법칙성	자연
쾌·불쾌의 감정	판단력	합목적성	예술
욕구능력	이성	궁극목적	자유

『판단력비판』 서론에 따르면, 마음의 전체 능력들은 스스로 법칙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 능력으로 규정된다. 여기에는 욕구능력, 쾌·불쾌의 감정, 인식능력이 속하는데, 이 때 인식능력(E2)은 현상들의 총괄로서의 자연에 대한 이론적이고 규정적인 인식을 수행하는 지성을 일컫는다. 이와 달리 지성, 판단력, 이성을 포함하는 인식능력(E1)은 자발성 및 능동성을 발휘하는 상위 인식능력이다. 인간이 대상의 총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세 인식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현상들의 크기 규정을 제공하는 지성개념들에 따라 대상을 총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성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상의 판정에 관여하는 취미론과 숭고론에서의 상상력과 달리, 천재론에서 상상력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규정된다. 천재는 “어떠한 특정한 규칙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재능”(KU 307)으로서 독창성을 제일의 속성으로 가진다. 나아가 천재는 상상력의 유희를 포착하고 새로운 규칙을 열어보인다.<sup>20</sup> 이로부터 천재에서의 상상력 또한 지성규칙에 규제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감적 판단력의 분석학’에서 서술되는 상상력의 자유가 독자적이고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까닭인즉 상상력이 대상 인식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지성과 조화하고(취미), 이성과 상충하며(숭고), 지성개념을 확장하고 이념을 현시함에 따라(천재) 미감적 판단력을 구성하는 상상력은 다른 인식능력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광상과 환상을 생산하는 상상력은 그러한 관계의 가능성조차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능력이다. 광상은 “감성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자”(KU 275) 하는 것으로, 이 때의 상상력에는 규칙이 없다. 환상은 상상력이 끊임없이 지어낸 결과물로서, 환상들에 집착하는 상상력은 취미에서처럼 자유롭게 유희하지만 그러한 환상들을 즐기는데 그친다.<sup>21</sup> 하지만 어떤 법칙이나 원리에 구속받지 않는 독자적인 상상력의 활동은 비판철학 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 이는 첫째 때로는 독자적인 상상력의 산물이 주관에게 생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적 상태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둘째 환상과 광상은 어떤 개념이나 이념과도 관계하지 않기에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상력은 자연으로부터 소재를 얻고 이를 가공하여 표상을 산출하는 ‘인식능력’이다. 그런데 상상력은 고유한 선험적 원리를 갖지 않는 까닭에 표상들에 스스로 보편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리하여 비판철학 체계 내에서 상상력은 다른 인식능력들과 관계맺음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하지만 이와 동시에 독자적인 활동가능성을 제한받는다.

---

<sup>20</sup> KU 317.

<sup>21</sup> KU 244.

상상력의 다양한 활동 충위가 상상력의 자유에 한계가 부여되는 정도와 관계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위에서 분류한 상상력의 유형들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재생적 상상력은 경험적 법칙들인 연합 법칙들에 맞추어 대상을 재생하는 능력이다. 가령 프리즘을 통한 빛의 분산에서 어제 본 무지개를 떠올리는 것은 재생적 상상력에 따른 활동이다. 무지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프리즘 실험으로부터 무지개에 대한 표상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 이처럼 재생적 상상력은 경험에 기반하여 대상(무지개)을 소생시키는 능력이며, 또한 경험직관을 떠올릴 매개체(프리즘 실험)를 필요로 한다. 그런 까닭에 재생적 상상력은 자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상력이다.<sup>22</sup>

초월적 상상력은 인식의 두 원천인 감성과 지성의 결합을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서, 순수 지성개념들인 “범주들에 따라서 직관을 종합”한다(KrV B152). 머리 속에 떠올린 원형의 표상과 같은 형식적이고 감성적인 형태들이 초월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경험의 어떠한 대상도 이러한 형식적 표상에 완벽히 들어맞을 수 없으나, 그 표상을 매개로 순수 지성개념들은 경험적이고 감성적인 직관들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름달은 완벽한 원형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것을 원형이라고 칭한다. 경험에 근거하는 재생적 상상력과 달리 초월적 상상력은 감관을 선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초월적 상상력은 범주들에 의거하여 지성과 객관적으로 합치하기에 합법칙성<sup>23</sup>의 규제를 받는 자유롭지 못한 상상력이다.

<sup>22</sup> 재생적 상상력과 기억능력 모두 상상력의 한 부류이다. 그러나 기억은 “이전의 표상을 자의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Anth 182) 점에서 비자발적인 재생적 상상력과 구분된다.

<sup>23</sup> 초월적 상상력이 따르는 범주는 순수 지성개념들로서 표상들을 선험적이고 보편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논리적 형식을 제공한다. 또한 범주는 상상력에 의해 규정된 직관의 잡다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법칙이다. 만약 범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선험적 원리가 부재하는 상상력은 직관의 잡다를 자의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상에 대한 보편타당한 인식을 구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험적 인식을 구성하는 상상력은 언제나 지성이 제공하는 법칙들에 맞추어 표상을 생산한다.

다음으로 미감적 상상력<sup>24</sup>은 지성이나 이성과 합목적적인 관계를 이루는 “생산적이고 자기활동적인”(KU 240) 능력이다. 이를테면 취미판단에서 미감적 상상력은 주어진 대상의 형식을 통해서 지성과 유희하며, 숭고판단에서는 대상의 총괄에 실패함으로써 주관 안의 이성을 불러일으키고, 천재에서는 이성이념들을 감각적으로 현시한다. 이러한 활동에서 상상력은 대상의 인식을 지향하지 않는다. 대신 미감적 상상력은 대상의 표상을 쾌·불쾌의 감정과 관계시킴으로써 취미나 숭고를 판정하거나, 가능한 표상들을 자유로이 가공함으로써 미감적 이념을 현시한다. 이처럼 미감적 상상력은 지성개념들의 구속에서 벗어나 직관들을 자유로이 포착하고 종합한다는 점에서 초월적 상상력보다 자유롭다. 하지만 미감적 상상력은 다른 인식능력들과의 관계를 필수요건으로 삼는다는 점, 이에 따라 합목적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자유를 구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환상적 상상력<sup>25</sup>은 어떠한 규제도 없이 홀로 활동하는 능력으로서 표상들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낸다. 환상적 상상력은 가능한 경험의 한계 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더욱이 환상적 상상력의 활동에서는 어떠한 규칙도 찾을 수 없는 까닭에 그 산물은 종종 비현실적이거나 기괴한 것으로도 나타난다. 수면 중에 꾸는 꿈 역시 환상적 상상력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환상적 상상력의 활동에서는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가 유지될 뿐, 그로부터 주관은 어떠한 의지나 목적을 실현시키지 않는다.

위와 같이 상상력이 여러 면모를 가질 수 있는 까닭은 본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sup>26</sup> 다만 상상력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발휘될 경우,

<sup>24</sup> 칸트는 미감적 상상력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감적 관점에서는 상상력이 자유롭다”(KU 317)고 서술되며, 이러한 자유를 통해 상상력은 지성이나 이성과 합목적적으로 관계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 특수에서 보편을 탐색하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인 합목적성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자유로우면서 합목적성과 관계하는 상상력을 미감적 상상력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sup>25</sup> 본고에서는 지성, 이성과 관계맺지 않는 상상력을 환상적 상상력이라 칭하고자 한다. 까닭인즉, 광상과 환상의 발생근거 및 효과는 상이하지만 모두 상상력의 단독적인 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칸트가 상상력의 창작성을 논하면서 환상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상적 상상력’이란 용어를 통해 상상력의 무제약적인 생산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sup>26</sup> KU 257.



즉 환상적 상상력만이 독자적으로 유희할 경우 그 산물은 어떠한 규칙이나 원리도 포함하지 않는 까닭에 보편적으로 공유될 수 없다. 때문에 상상력이 보편성을 담보하는 인식능력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자유가 다소간 규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비판철학 내에서 상상력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감성계와 초감성계의 경계를 지울 수 있는 상상력만이 『판단력비판』의 과제인 현상계로부터 예지계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철학 일반의 구역들을 자연개념들의 현상계와 자유개념들의 예지계로 분할한다. 전자는 지성이 법칙을 수립하는 구역으로써 가능한 경험 일반과 관계한다면, 후자는 이성이 법칙을 부여하는 곳으로써 초감성적인 것들과 관계한다. 그러나 감성적인 것의 현상계와 초감성적인 것의 예지계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간극”이 놓여있는바(KU 176), 우리 인식의 선형적 방식들을 다루는 초월철학의 체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통일되어야 한다.<sup>27</sup>

본고는 이러한 통일의 가능성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념에 다가가는 상상력을 통해 실현됨을 미감적 상상력의 틀 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취미판단에서 상상력은 주어진 경험적 표상을 통해 지성과 자유로이 유희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희는 감성계를 주관하는 지성과의 합치인 까닭에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동 범위는 가능한 경험 일반에 제한된다. 다음으로 숭고판단에서 상상력은 무한정성을 함유하는 대상의 표상을 통해 이성과 관계맺는다. 이로부터 상상력이 감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도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숭고판단에서 상상력은 무한정성의 표상을 총괄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이성이념들과 반목적적 관계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천재에서 상상력은 현실적인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감관표상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자연을 창조해낸다. 더욱이 천재는

<sup>27</sup> 그 해결책으로서 칸트가 기획한 바는 지성과 이성의 중간에 위치한 판단력과 인식능력과 욕구능력 사이에 자리하는 쾌·불쾌의 감정을 통해 철학의 두 부문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수에서 보편을 탐색하는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자연의 특수한 법칙들을 추적하고 그 법칙들이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칙들의 체계적 통일성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지성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자연의 질서가 가능함을 하나의 초월적 원리로서 상정한다. 이것이 곧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이자 반성적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다.

자연으로서 자신의 산물에 규칙을 부여하지만, 이 규칙은 지성을 통해 규정될 수 없는 이념이다. 그리하여 천재의 상상력은 “이념들에게 객관적 실재성의 외양”을 부여하는 능력으로서(KU 314) 감성계와 예지계의 매개를 실현한다. 이로부터 본고는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전체 감관표상들을 질료로 삼으면서도 개념을 확장하고 또 이념을 현시하는 천재의 활동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발휘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제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각 유형의 상상력이 비판철학 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살펴보자.

## II. 규제받는 상상력

이제 인식론, 취미론, 숭고론에서 논의되는 상상력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경우에서 상상력의 자유가 규제받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자. 인식판단에서 상상력은 감성과 지성의 매개를 위해 요청되며, 지성개념들에 따라 직관의 잡다를 종합한다. 반면 취미판단과 숭고판단에서 상상력은 주어진 대상의 표상들을 쾌·불쾌의 감정과 관계시키며, 특정 개념에 얽매임이 없이 주어진 표상을 자유로이 포착한다. 이에 따라 인식을 구성하는 초월적 상상력과 취미와 숭고를 판정하는 미감적 상상력은 지성개념의 구속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의 자유를 개념의 부재에서만 찾을 경우 취미판단과 숭고판단에서 상상력이 다른 인식능력들과 관계맺는 근거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I장에서는 인식, 취미, 숭고를 이루는 상상력은 모두 대상의 ‘판단’에 관여한다는 점, 그리고 판단결과에 대한 보편타당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선험적 원리에 규제받음을 밝히고자 한다. 1절에서는 『순수이성비판』의 연역론과 도식론을 바탕으로 상상력에 대한 지성의 규제적 특징을 고찰한 후 초월적 상상력은 합법칙성 원리에 구속됨을 확인할 것이다. 2절에서는 취미에서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유희하면서도 지성과 조화하는 이유를 취미판단의 형식과 상상력의 특성에서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취미판단이 보편타당성을 요구함에 따라 상상력의 방종을 제약할 원리로서 합목적성이 요청됨을 밝혀질 것이다. 이어서 상상력과 지성의 조화에서 확인되는 자연의 합목적성을 통해 지성의 합법칙성이 완성됨을 주장할 것이다. 3절에서는 숭고의 상상력은 스스로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감성적인 것의 경계를 지워버린다는 점에서 가능한 경험의 한계에 머무르는 취미의 상상력 보다 자유로움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의 이러한 확장은 주관의 합목적성을 원리로 무한자의 이념을 향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숭고에서의 상상력 또한 합목적성의 원리에 규제받음을 설명할 것이다.

## 1. 인식에서의 상상력

칸트의 인식론에 따르면 우리 인식은 감성에 따른 직관과 지성에 따른 개념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sup>28</sup>. 직관은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맺는 표상이자 개별적 대상의 수많은 표징들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감성의 선험적 형식인 시간과 공간에 따라 배열된다. 그리고 지성은 직관의 다양을 통일하는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직관 표상을 경험 일반과 관계시킨다. 그러나 지성이 제공하는 개념들과 감성이 제공하는 직관들은 동류가 아니다. 이로 인해 지성은 감성을 통해 질서 지워진 직관의 잡다들을 직접 포섭하고 종합할 수 없다<sup>29</sup>. 대신 상상력이 잡다들을 종합하고 지성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인식이 산출된다<sup>30</sup>. 주목할 점은 상상력의 이러한 매개적 종합 활동이 ‘순수 지성개념들의 연역’ A판에서는 주관 인식의 세 원천으로서, 그리고 도식론에서는 순수 지성개념들이 대상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감성적인 조건으로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칸트의 인식론에서 인간 인식의 두 줄기는 언제나 감성과 지성이며, 이러한 구분은 『순수이성비판』의 구성을 결정하고 또 초월철학 전반을 꿰뚫고 있다. 그런데 칸트는 순수 지성개념들의 연역과 도식기능에 관한 장에서 상상력을 인식의 필요조건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혼란을 야기한다. 이 문제는 상상력이 인식을 산출하고자 행하는 종합이 지성에 의해 구속받는다든가, 다시 말해 잡다가 직관되는 방식에 규칙을 부여하는 지성개념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점의

---

<sup>28</sup> “지성과 감성은 우리에게 있어 서로 결합할 때만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떼어 놓으면, 우리는 개념들 없는 직관이거나 직관들 없는 개념을 갖는 것이지만, 이 두 경우에 우리는 아무런 일정한 대상과도 관계시킬 수 없는 표상들을 갖는 것이다.” KrV A258/B314.

<sup>29</sup> 지성만이 자연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법칙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 지성은 이 법칙들을 현상들을 비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런데 우리는 인식의 대상인 객관들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현상하는 바대로, 다시 말해 감관을 통해 수용되고 감성 형식에 따라 직관되는 대로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유를 통해 생성된 법칙들은 현상으로서의 대상과 동종적이지 않다.

<sup>30</sup> 이 때문에 칸트는 순수 직관 형식에 주어진 잡다를 종합하는 상상력이 우리 인식의 최초의 근원을 파악할 때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KrV A78/B103 참조.

규명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연역 A판에서 B판으로의 서술 변화는 상상력 활동에 대한 지성개념의 규제적 특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그리고 그 특징이 도식론에서 부각됨을 밝힐 것이다. 이로부터 인식론에서 논의되는 상상력은 지성의 합법칙성에 따르는 능력임이 확인될 것이다.

### 1) 직관표상을 재생하는 상상력

감성에 따른 직관과 지성이 산출한 개념을 매개하는 상상력의 활동은 먼저 『순수이성비판』 내 ‘순수 지성개념들의 연역’에서 논의된다. 순수 지성개념들이란 서로 다른 표상들을 선형적이고 보편적으로 결합하는 형식들이다. 그런데 순수 지성개념들은 사고의 조건들이자 인식의 형식들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에 대한 인식을 산출할 수 없다. 인식의 대상이자 내용인 현상은 오직 객관에 의해 촉발되는 감성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식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사유에 따른 순수 지성개념들이 감성을 통해 주어지는 객관들과 관계맺어야 하는바, 연역론은 선형적 지성개념이 어떻게 감성의 대상과 관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설명이다.

연역 A판에서 개념과 대상의 결합은 순수 지성개념들에 따라 직관을 재생하는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상력이 종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 형식에 따라 통괄된 표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래 표상들은 대상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고 사고를 통해 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발생 방식에 관계 없이 모든 표상은 마음의 변양(變樣, Modifikationen)이자 내적 상태로서 내감의 형식적 조건인 시간에 종속한다.<sup>31</sup> 그리하여 인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직관표상은 감성의 선형적

---

<sup>31</sup> 시간은 공간과 함께 감성적 직관의 순수한 두 형식 중 하나이다. 직관은 대상에 의해 주어지는 표상으로서,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감성은 이러한 직관을 제공하는 유일한 능력이다. 따라서 감성은 “우리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으로 표상들을 얻는 능력”으로(KrV A19/B33) 규정된다. 그리고 감성에는 대상에 의해 주어진 질료들을 질서지우는 형식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곧 감성의 선형적 형식인 시간과 공간이다. 시간과 공간은 각각 내감과 외감의 형식이

형식인 시간 안에서 포착된 것으로 존재한다. 시간에 의해 포착되기 이전의 것은 한낱 마음의 인상들로서 여기에는 잡다가 함유되어 있다. 이 잡다가 감성 형식에 의해 여과되고 결합됨에 따라 하나의 표상이 형성된다. 이러한 여과 및 결합 작업이 곧 포착의 종합으로서 이를 통해 인식의 내용이자 대상의 직접적 표상인 직관이 마련된다.

상상력은 이렇게 마련된 표상을 재생함으로써 대상의 인식에 관여한다. 인식을 산출하는데 상상력의 재생이 필요한 까닭은 첫째 선행하는 표상들의 재생 없이는 결코 하나의 전체 표상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관표상은 한 순간에 수용된 잡다들이 종합된 것에 불과하다. 개별 직관표상들을 하나의 대상에 관한 표상으로 종합하는 것은 선행하는 표상들을 재생하는 상상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가령 무지개를 바라볼 때 각각의 색에 관한 표상을 순차적으로 떠올리지 못한 채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 등을 무차별적으로 연결시킨다면 무지개라는 하나의 표상을 생성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상력의 재생작용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상상력의 재생 없이는 우리 앞에 주어지지 않은 대상의 표상을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감성은 수동적인 기관으로서 대상에 의해 촉발되지 않는 한 표상을 산출할 수 없다. 반면 상상력은 대상의 현전 없이도 그것에 관한 표상을 떠올릴 수 있는 까닭에 서로 다른 표상들을 연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까만 밤하늘로부터 밝아올 아침을, 나뭇가지만 남은 겨울의 은행나무에서 노란 은행잎을 떠올릴 수 있다.

위와 같이 상상력은 직관표상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전체 표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리고 관련 표상들을 연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표상들을 인식의 내용으로 마련한다. 또한 상상력은 이러한 재생활동을 통해 지성개념을 직관표상에 적용함으로써, 다시 말해 인식의 두 원천인 감성과 지성을 매개함으로써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까닭인즉 지성만이 상상력이 종합한 표상에 통일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표상들을 상상력이 일관되게 연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상력이

---

기도 하다. 내감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시간상에서 파악하는 기관이다. 모든 표상들은 마음의 규정들로서 내적 상태에 속하며, 이러한 내적상태에 대한 의식은 내감에 의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모든 표상들은 시간에 속한다.

순차적으로 재생한 직관표상들이 동일한 대상의 표상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그 표상들은 결코 하나로 종합되지 못한다. 일련의 표상들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의식, 다시 말해 표상들의 연결의 내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지성의 통각이다. 그리하여 상상력이 재생한 감각적 표상들이 통각에 의해진 곳으로 수렴하고, 이러한 수렴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이끌린다. 이에 따라 상상력의 재생적 종합은 통각을 전제로 가능하다. 관련 표상들을 연합하는 상상력의 재생활동 또한 지성법칙에 근거한다. 상상력이 연합의 근거로서 가지는 법칙은 곧 현상들이 따르는 규칙으로서 이것은 언제나 일정해야 한다. 그러한 법칙이 없다면 상상력은 어떤 표상을 동일하게 재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해가 때로는 동쪽에서 때로는 서쪽에서 뜬다면, 북극곰이 갑자기 아마존 밀림에서 나타난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서쪽 하늘을 물들인 노을빛으로부터 어두워질 밤을, 북극곰으로부터 빙하를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지성만이 이러한 법칙을 제공할 수 있기에 상상력이 따르고 현상들이 종속하는, 다시 말해 재생의 일관적 종합을 가능케 하는 법칙은 지성법칙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겹의 종합들(직관, 상상력, 통각의 종합들)이 연역 A판에서 주장하는 경험 대상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의 토대이자 주관적인 인식의 세 원천이다. 다시 말해 순수 직관형식으로서의 시간이, 연합 및 재생을 수행하는 상상력의 종합이, 표상들의 연결의 내적 근거를 마련하는 통각이 그 원천들이다. 재생적 종합을 수행하는 상상력이 감성 및 지성과 함께 인식의 필요조건으로 요청되는 까닭은 상상력의 종합을 통해 감성을 통해 제공된 직관표상들이 개념을 산출하는 지성의 통일작용과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식을 산출하는 상상력의 재생적 종합은 지성에 의해 규제받는 활동이다. 까닭인즉 지성의 통각이 직관과 상상력에 의한 모든 종합 활동을 동일한 주관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의식을 종합하며 또한 순수 지성개념들만이 잡다의 종합과 표상들의 재생에 규칙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원칙[통각의 통일 원칙]에 따라서 모든 현상들은 철두철미 내 마음에 들어오게, 바뀌 말해 포착되게 마련이고, 그래서 현상들은

통각의 통일에 합치한다.<sup>32</sup>

그러니까 상상력의 종합에서의 모든 형식적 통일과, 이를 매개로 한 현상들에게까지 내려가는 (인지, 재생, 연합, 포착에서의) 상상력의 모든 경험적 사용도 저 범주들[순수 지성개념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들은 저 요소들에 의거해서만 인식에 그리고 도대체가 우리 의식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소속될 수 있으니 말이다.<sup>33</sup>

그리하여 상상력이 주관의 세 인식 원천 중 하나로 규정되고, 또 선험적 종합을 행함에 따라 생산적 상상력이란 이름을 부여받을지라도 인식을 산출함에 있어 상상력은 지성의 규제에 따라 종합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인식을 구성하는 상상력은 자유롭지 않으며, 인식의 다른 두 원천들과 달리 상상력 자체가 선험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칸트는 상상력 그 자체를 인식의 원천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이 행하는 종합을 인식 성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위치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상상력은 통각과 관계할 때만, 그리고 지성개념을 종합의 원리로 삼는 경우에만 인식을 구성한다. 상상력이 이처럼 지성에 의해 규제받는 까닭은 상상력이 대상의 표상들과 직접 관계하면서도 그것들을 보편 타당하게 결합할 원리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상상력은 지성개념에 따라 표상들을 일관되게 종합한다. 그러나 『순수이성비판』 A판에서는 상상력에 대한 지성의 주도적인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연역론과 도식론 간의 연결성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본고는 직관 및 상상력에서의 종합 활동을 별도로 다루었던 연역 A판에서 자발적 능력으로서 결합을 수행하는 지성의 성격 및 통각의 종합적 통일을 중심으로 논하는 B판으로의 변화는 상상력에 대한 지성의 규제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해석한다. 이제 연역 B판 및 도식론의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지성에 봉사하는 상상력의 성격을 확인해보자.

---

<sup>32</sup> KrV A123.

<sup>33</sup> KrV A125.



## 2) 지성에 봉사하는 상상력

연역 B판에서 상상력의 종합활동은 24절 ‘감관의 대상 일반에 대한 범주들의 적용에 대하여’에서 간략하게 논의된다. 순수 지성개념들은 사유 형식들만을 제공할 뿐, 인식의 내용을 이루는 직관의 대상들과 관계맺는 것은 잡다를 하나의 표상으로 통일하는 통각이다. 잡다를 통일함으로써 하나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생산하는 통각은 자발적인 사고 작용으로서 지성활동에 속한다. 그러나 통각의 통일에 맞춰 감관을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상력이다. 그리하여 『순수이성비판』에서 상상력에 대한 규정은 통각 활동과 감성적 직관을 실질적으로 관계시키는 종합활동의 필요성이 요청된 후에야 비로소 등장한다. 24절에 따르면, “상상력이란 대상의 현전 없이도 그것을 직관에서 표상하는 능력이다.”(KrV B151) 이어서 칸트는 (1) 모든 직관은 감성적이라는 점에서 상상력을 감성에 종속시키면서도, (2) 상상력은 수동적인 감성과 달리 자발적으로 종합을 수행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감성을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며<sup>34</sup>, 또한 (3) 상상력은 범주들에 따라 직관을 종합한다고 서술한다. 초월적 종합을 수행하는 상상력에 대한 이러한 층위 구분은 도식론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도식론은 개념 아래에 직관이 주어질 수 있는 형식적 조건에 관해 논하는 장이다. 이러한 형식적 조건이 곧 초월적 도식으로서, 그것은 “그 아래에서만 범주가 대상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KrV A140/B179) 감성적인 조건이다. 도식이 지성의 산물인 범주를 적용하는 조건임에도 감성적이라 불리는 까닭은 그것이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연역 A판에서의 논의를 상기하면, 상상력은 순수 지성개념들에 따라 감관을 선험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이다. 그 종합의 결과로서 산출되는 것이 도식인바, 도식은 현상으로서의 감성적 직관들 및 범주로서의 순수 지성개념들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춘 매개적 표상이다. 그런데 칸트는 도식의 매개적 성격을 상상력의

<sup>34</sup> 칸트는 이러한 자발성을 근거로 감관을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상상력을 생산적 상상력이라 칭한다. 이는 경험적 법칙들이자 연합 법칙들에 따르는 재생적 상상력과 구별하기 위함으로, 재생적 상상력이 행하는 종합은 선험적 인식의 가능성과 무관한 까닭에 초월철학이 아닌 심리학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KrV B152 참조.

활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감 형식인 시간 조건이 가지는 양가적 성격에서 찾는다. 시간은 모든 표상들을 연결하는 선형적·형식적 조건이기에 잡다한 것 일반을 통일하려는 범주와 동종적이다. 또한 시간은 감성형식으로서 잡다의 모든 경험표상에 포함되기에 현상과도 동종적이다. 그리하여 현상들에 대한 범주의 적용은 초월적 시간 규정에 의해 가능해진다. 칸트는 이러한 초월적 시간 규정을 지성개념들의 도식이라 부른다<sup>35</sup>. 문제는 칸트가 초월적 시간 규정을 도식이라 칭할 뿐, 도식을 생산하는 상상력과 내감의 형식인 시간 조건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도식이 “사유 속에서만 실존”(KrV A140/B180)한다고 서술하다가도 “본래 도식은 현상에 불과하다”(KrV A146/B186) 고 부연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의문점은 초월 논리학 내에서 도식론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칸트는 초월적 판단력 일반에 대한 서론에서 초월 논리학은 인식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고 일반의 형식만을 논구하는 일반 논리학과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에서 대상들과 개념들의 선형적 관계를 다루는 초월철학의 우위성이 드러난다고 천명한다. 이 때 칸트가 말하는 인식 내용이란 단순히 감성을 통해 제공된 무규정적 대상들이 아니라 개념들과 관계할 수 있도록 정렬된 표상들이다. 그리고 표상들을 정렬하는 선형적 방식을 다룬 장이 도식론이다. 초월 논리학의 기획에 비추어 도식을 다시 규정해보면, 도식은 감성 형식에 주어지는 잡다의 통일이 개념에 걸맞을 수 있도록 배열하는 규준이며, 도식 기능은 순수 지성개념들인 범주가 제공하는 규칙에 따라 내감 형식을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sup>36</sup>. 그런데 시간은 감성의 선형적 형식이며, 감성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으로만 표상들을 얻는 수동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시간 조건은 표상들을 규정할 방식을 스스로 산출해내지 못한다. 반대로 지성은 자발성을 갖추고 있지만, 지성의 산물인 개념은 순전한 사유형식인 까닭에

<sup>35</sup> KrV A138-139/B177-178.

<sup>36</sup> 이 때 도식이 내감과 관계하는 이유는 외감은 오감과만 관계하지만 내감은 모든 직관의 형식이기에 외감은 언제나 내감의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KrV A23/B37 참조.

직관을 직접 배열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상상력은 직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도 자발성을 갖춘 능력으로서 감성을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직 상상력만이 감성과 지성을 이어주는 매개적 표상인 도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정리하면, 상상력의 산물인 도식은 선형적 지성개념들에 따라 규정된 시간 조건인 까닭에 초월적 시간 규정이라 불릴 수 있다. 이로부터 상상력과 시간 간의 관계는 도식을 생산하는 능력과 도식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도식이 상상력의 산물이자 매개적 표상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도식이 사유로 존재하면서도 현상이라 불리는 까닭을 설명해준다. 상상력이 직관과 관계하면서도 자발성을 발휘함으로써 감성과 지성의 성격을 모두 갖춘 것처럼, 상상력의 산물인 도식 역시 범주와 현상 양자의 성격을 지닌다. 본래 범주와 현상 자체는 상이한 종류의 것으로서 지성은 언제나 통각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잡다에 관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연역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상력이 범주와 현상의 간극을 메워줌으로써 전체 인식의 토대를 이루는 선형적 인식 가능성이 확보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도식론은 현상 일반과 순수 개념의 선형적 결합 방식에 관해 논하고 있다. 현상과 개념 양자의 결합 방식으로서의 도식을 산출하는 상상력은 선형적 인식 내용의 표상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초월적 상상력이라 칭해진다. 요컨대 초월적 상상력은 언제나 지성 규칙들인 범주에 맞춰 감성을 규정하고 종합하는 활동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상상력은 지성에 봉사하는 상상력이다.

로젠버그와 카울바하는 이러한 봉사적 상상력을 지성에 편입시킨다. 로젠버그는 직관들을 하나의 표상으로 모으는 상상력의 종합활동이 실제로는 지성이 이끌고 행하는 특별한 역할이며, 생산적 상상력은 곧 지성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sup>37</sup> 다만 상상력이란 용어는 “이 종합의 산물이 갖는 감각적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 부여되었다”(96)고 해석한다. 그러나 연역 A판에서 통각이 상상력의 기능을 지성화한다는 표현이 등장한 다음, 곧바로 상상력은 “모든 선형적 인식의 기초에 놓인 인간 영혼의 기본기능”(KrV A124)으로 규정된다. 또한 연역 B판에서 상상력이 “직관을

<sup>37</sup> Rosenberg, J.(2005), 94-97쪽.

제공하는 주관적 조건이라는 점에서 감성에 속하”는(KrV B151) 것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상상력이 지성의 감성적 측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칸트 인식론의 대전제인 감성과 지성의 구분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울바하는 직관과 개념의 결합이 상상력에서 가능한 이유를 상상력의 매개가 아닌 지성의 자발성을 통해 설명한다.<sup>38</sup> 그는 상상력이 객관적인 상(像)을 만들어내기에 직관을 담고 있다고 적시하면서도, 그것은 현전하는 대상의 촉발 없이도 활동하기에 “순수한 지성의 자발적 운동(143)”을 보여주며, “범주가 자신을 생산적 상상력으로 전환(145)”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은 상상력의 도식 생산이 범주의 규칙에 따라 대상을 선험적으로 구상한 결과라는 점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카울바하는 상상력의 초월적 운동은 곧 범주의 종합운동이며, 도식 기능은 “순수 지성 내지는 선험적인 순수 상상력의 필사본적 성격”(142)이라 평가함으로써 상상력을 지성에 부속하는 능력으로 간주한다. 그는 이러한 관점을 취미론에도 적용하여, 상상력이 스스로 자유롭게 지성의 규칙에 따름으로써 법칙 없는 합법칙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취미가 상상력의 자유로운 합법칙성에 근거하여 대상을 판정하며, 지성만이 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상력이 지성의 법칙과 무관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취미판단에 대한 주해에 따르면 상상력은 주어진 객관의 형식에 매이는 한에서 지성의 합법칙성 일반과 일치할 것 같은 형식을 제공하며, 이 경우 “지성이 상상력에 봉사한다”(KU 242). 이에 따라 취미판단에서의 합법칙성이란 주어진 대상의 표상을 통해 두 인식능력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지시하는 것 이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두 능력의 주관적 합치는 쾌의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자연대상과 인식능력들 간의 합치가능성인 합목적성에 근거한다는 점, 그리고 합목적성과 관계하는 쾌·불쾌의 감정은 상상력에 의해 대상의 표상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상상력을 지성에 부속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상상력에 대해 이 같은 오해가 일어나는 까닭은 첫째 상상력의 활동을

---

<sup>38</sup> 카울바하(1992), 139-145쪽, 243-245쪽.

오직 도식론에 근거하여 설명함에 따라 상상력을 지성과 완전히 구분되는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둘째 지성규칙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상상력의 활동 가능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식판단에서의 상상력과 미감적 판단에서의 상상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성에 봉사하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합목적성을 원리로 삼는 미감적 상상력으로서, 지성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지성을 이끄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제 취미론과 숭고론을 분석함으로써 상상력의 주도적인 면모를 확인해보자.

## 2. 취미에서의 상상력

### 1) 지성과 유희하는 상상력

취미는 한 대상의 아름다움의 여부를 쾌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취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대상의 표상을 상상력을 통해 쾌·불쾌의 감정과 관계시켜야 한다. 취미판단을 이끄는 능력이 상상력인 이유는 취미를 판단할 경우 주관은 표상에 의해 촉발되는 대로 느낌으로써 쾌·불쾌의 감정과 관계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표상들이 지성에 의해 이끌릴 경우, 이 표상들은 인식을 위해 특정한 지성개념과 관계맺음으로써 인식판단을 구성하거나 혹은 감관에 따른 지각들의 통일로서 순전히 주관 상태에만 머무르는 지각판단을 구성할 뿐이다<sup>39</sup>. 이처럼 인식판단과 취미판단을 이끄는 능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취미판단을 논함에 있어 인식판단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까닭인즉 취미의 판정 근거인 쾌의 감정은 상상력과 지성의 주관적 합치로부터 발생하는데, 두 인식능력들 간의 합치가 인식판단의 성립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두 판단이 형식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sup>39</sup>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는 한에서 경험적 판단들은 경험판단들이다. 그러나 단지 주관적으로만 타당한 경험적 판단들을 나는 순전한 지각판단들이라고 부른다. 후자는 아무런 순수 지성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사고하는 주관에서 지각들의 논리적 연결만을 필요로 한다.” P 298.

이로 인해 칸트는 인식판단과 취미판단의 차이를 특정 능력의 부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두 인식능력 간의 “관계”로부터 도출해낸다. 인식판단에서 상상력과 지성은 주어진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두 능력은 하나의 긍정적 개념 아래에서 부합한다. 반면 취미판단은 대상의 현존 및 대상에 대한 개념적 인식에 무관심한 판단이다. 그리하여 취미판단에서 상상력은 직관의 잡다들을 합성함에 있어 개념의 강제로부터 벗어나 지성과 자유롭게 유희한다.

인식론과 취미론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대개 그 관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상상력의 자유를 특정 개념의 부재에 따른 반성활동에서 찾는다. 일례로 김상현은<sup>40</sup> 취미판단이 반성적 판단력에 속하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취미판단에서의 상상력은 “새로운 개념을 찾아서 스스로 그 개념에 합치하는 방식”을(16) 수행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특수한 것에서 보편으로 나아가는 반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성개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상상력의 자유를 반성에서 찾을 경우, 예컨대 지어내기(Dichten)처럼 개념과 무관한 환상에서도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칸트는 아름다운 대상들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각각 상상력의 포착과 지어내기로 구분한다.<sup>41</sup> 전자는 취미판단에서 상상력이 주어진 대상의 표상으로부터 유희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대상의 판정과 무관한 상상력이 그 표상으로부터 마음 속에 환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환상들은 반성활동이 아님에도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를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KU 244) 상상력을 고무시킨다. 이처럼 특정 개념이 부재하더라도 상상력이 언제나 반성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상력의 자유는 특정 개념의 부재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는 고유한 선형적 원리가 부재함에 따라 본래부터 상상력이 자유로운 능력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다만 상상력 자체만으로는 자신의 산물에 대해 보편성을 부여할 수 없는 까닭에 보편타당한 판정에 관여하는 상상력은 언제나 다른 인식능력과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취미판단을 구성하는 상상력은 지성개념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취미판단이

<sup>40</sup> 김상현(2006), 1-26쪽.

<sup>41</sup> KU 243-244.

보편타당한 판단인 한에서 지성과 관계한다.

다른 실례로서, 김기수<sup>42</sup> 역시 미감적 판단력에서 상상력이 발휘하는 능동성의 근거를 지성개념의 부재에 따른 반성적 판단에서 찾고 있다. 그는 칸트에게서 상상력이 자발성을 갖춘 능력으로 일관되게 서술되는 것에 주목하여, 취미판단을 이끄는 능력이 상상력임을 규명함으로써 미적 상상력의 고유성을 드러내고자 시도한다. 반성적 판단이 상상력의 생산적이고 자발적인 포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로부터 상상력을 지성과 동등한 위치로 자리매김하는 그의 주장은 미감적 판단력의 서술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감적 판단력에서 상상력의 능동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가능한 경험 일반에 머무르는 지성과 달리, 상상력은 경험에 머무르면서도 경험 너머를 표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반성적 판단력의 선형적 원리이자 초월적 원리로서의 자연의 합목적성은 상상력이 대상의 표상과 관계시킨 쾌의 감정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이처럼 상상력의 적극성은 대상의 자유로운 포착 이전에 초월적인 것과 관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대상의 가능한 형식들을 생산해내고 이념을 현시하는 천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취미론에 근거하여 상상력이 갖는 독자적인 역할과 지위를 논증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부족함을 보인다.

취미판단에서 논의되는 상상력의 자유를 논함에 있어 위와 같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지성이 관계맺는 방식을 고찰하기에 앞서 두 표상능력들이 관계맺어야 하는 동기부터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취미판단의 형식 자체에 있다. 취미판단은 상상력에 의해 주어진 대상의 표상과 쾌의 감정이 결합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취미판단 또한 판단인 한에서 판단 형식<sup>43</sup>의 필요조건인 지성을 요청한다. 이는 주관의 감정과

---

<sup>42</sup> 김기수(2010), 297-335쪽.

<sup>43</sup> 판단 형식을 성립하는 능력이 판단력이 아니라 지성인 까닭은 첫째 판단은 “한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mittelbare) 인식”(KrV, A68/B93), 다시 말해 대상의 표상(S)과 또 다른 표상(P)의 결합관계이기 때문이며, 둘째 대상과 무관한 표상을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지성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판단력은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고하는 능력”(KU 179)으로서 표상 S와 P사이의 내용 관계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관계하는 취미판단이 “개념들에 기초하지도 않고 개념들을 목표로 삼지도 않음”(KU 209)에도 개념들의 능력인 지성이 관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다음의 구절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미감적 판단으로서의 취미판단도 (다른 모든 판단들이나 마찬가지로) 지성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으로서 지성이 취미판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대상의 표상을 (개념 없이) 표상의 주관 및 주관의 내적 감정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하는 능력으로서 지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이 판단이 보편적 규칙에 따라서 가능한 한에서 그러한 것이다.<sup>44</sup>

취미가 대상의 아름다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한에서 취미판단의 형식은 주어진 대상의 표상(S)과 아름다움의 표상(P)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아름다움의 표상은 대상의 어떤 성질이 아니라 쾌의 감정을 느끼는 주관의 상태를 일컫는 표상으로서 상상력을 통해 대상의 표상과 관계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표상 간의 결합 여부는 대상의 표상과 쾌의 감정을 관계시키는 상상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각 표상을 주어져 서술어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판단 형식을 구성하는 것은 지성이다. 따라서 주어진 대상으로부터 쾌감을 느낀 주관의 상태를 대상의 판정과 관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표상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지성이 요청된다.

취미판단에서 상상력이 지성과 관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쾌의 감정과 관계하는 상상력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발휘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의 분석학 9절에 따르면 쾌감은 “인식 일반을 위해 주어진 한 표상에 대한 표상력들의 자유로운 유희의 감정 상태”(KU 217)이다. 취미판단은 상상력이 이끄는 미감적 판단으로서 개념적 인식을 산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취미판단이 인식 일반과 관계하는 까닭은 아름다움이 보편적인 흡족의 대상이며, 이로 인해 취미판단에서의 흡족, 즉 쾌의 감정은 보편적 전달가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인식과 이 인식에 속하는 한에서의 표상”(같은 곳)에서만 가능하다.

---

<sup>44</sup> KU 228-229.



취미판단이 인식과 무관한 한에서 쾌감의 보편성은 주어진 대상의 표상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며, 이 표상은 인식과 관계맺어야 한다. 그리하여 취미판단에서 주어진 대상의 표상은 인식능력들과의 부합해야 하는바, 상상력과 지성은 이 표상을 통해 합치를 이룬다.

상상력의 제한적인 자유는 분석학 제1절에 대한 주해에서도 등장한다. 칸트는 취미판단에서 상상력의 자유를 고찰함에 있어 상상력의 생산성과 자기활동성은 수용하되, 이 경우 상상력은 주어진 대상의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는 한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설명한다.<sup>45</sup> 이에 따라 눈 앞의 대상이라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취미판단에서의 상상력은 주어진 객관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로이 유희하고 무규칙적인 환상을 생산하는 상상력과 구분된다<sup>46</sup>. 취미판단에서의 상상력의 자유를 논함에 있어 상상력의 무제한적인 유희가 부정되는 이유는 1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상력 자체는 선험적 원리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상상력만으로는 대상의 표상과 쾌의 감정의 결합에 보편타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는바, 취미판단에서 상상력은 지성과 관계함으로써 이를 해결한다.

정리하면 취미판단은 상상력이 주관하는 판단이지만, 판단 형식의 성립을 위해서 그리고 취미판단의 보편타당성을 위해서 지성을 요청한다. 그러나 취미판단에서의 지성은 인식판단에서처럼 상상력이 하나의 표상으로 포괄한 직관들에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상상력과 객관적 합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자기활동적인 상상력이 주어진 직관의 표상으로부터 만들어낸 “가능한 직관들의 임의적 형식들”(KU 240)을 통해 주관적으로 합치한다. 이러한 주관적 합치는 일체의 목적 개념 없이 대상을 표상하는 경우에도, 다시 말해 감정과 관계하는 취미판단을 행할 때도 상상력과 지성이 관계맺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에 따라 칸트는 취미판단이 “표상력들이 표상에 의해 규정되는 한에서, 순전히 표상력들의 상호 관계에 관한 것”(KU 221)이며, 두 인식능력들 간의 합치를 가능케 하는 대상의

<sup>45</sup> KU 240-241 참조.

<sup>46</sup> 회폐는 지성이 작동함으로써 미적 경험이 순전히 사적인 상상과 분리되며, 이에 따라 미적 경험은 극단적인 주관주의나 회의주의와 달리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Ottfried Höffe, 『임마누엘 칸트』, 이상헌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7(2014), 323-330쪽.

표상은 우리 주관에 합목적적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 확인되는 합목적성은 곧 대상의 표상과 관계하는 상상력이 따라야 할 원리이기도 하다. 만약 상상력이 주어진 대상의 직관을 대상과 무관한 표상들과 자유로이 관계시킴으로써 주어진 대상의 표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상상력은 대상의 표상을 매개로 지성과 유희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취미판단의 규정근거인 쾌의 감정과도 관계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취미판단에서의 상상력의 자유를 논함에 있어 규정적 개념의 부재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상상력과 지성 간의 주관적 합치만이 확인될 뿐, 어째서 상상력이 주어진 대상의 표상만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지성과 합치해야 하는가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미판단이 “대상의 성질만을 쾌·불쾌의 감정과 결부시키는 판단”(KU B14)이라는 점에서 상상력은 대상의 판정에 관여하는 “인식능력”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는 곧 상상력이 종합한 직관의 표상은 주어진 대상에 대한 표상으로 제한됨으로써 그 표상을 통해 지성과 합치할 것을, 그리고 이러한 합치를 통해 쾌감을 산출하는 대상에 대해 보편적 판단을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취미판단에서의 상상력은 자연이 우리 인식에 부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자연의 합목적성<sup>47</sup>을 원리로 활동함으로써 지성과 주관적으로 합치할 수 있다.

## 2) 합법칙성과 합목적성

『판단력비판』에서 미는 “형식적 주관적 합목적성”(KU 228)이며, 미감적 판단은 객관의 표상을 주관의 상태에만 관계시킴에 따라 “대상을 다루는 표상력들의 규정작용에서 합목적적 형식만을 주목하게”(같은 곳)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미의 분석학에 대한 주해에서 취미는 “상상력의 자유로운 합법칙성”(KU 240)이나 상상력과 지성의 “법칙 없는 합법칙성”(KU 241)으로서 설명된다. 이는 미에 관한 칸트 서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품게 할 뿐만 아니라, 취미판단에서의 상상력이 합목적성을 원리로 활동한다는

---

<sup>47</sup> “자연은 우리의 의도와, 그러나 오로지 인식만을 겨냥하는 의도와 합치하는 바이다.” KU 186.

본고의 설명과도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칙성의 연장 선상에 합목적성이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칸트가 취미를 규정함에 있어 합목적성과 합법칙성을 함께 사용한 이유 및 합목적성 원리에서 상상력이 가지는 의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판단력비판』 서론에 첨부된 표를 상기하면, 합법칙성은 지성의 선험적 원리이며 그 적용대상은 자연이다. 지성이 합법칙성에 따르는 이유를 확인하기에 앞서 지성과 자연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지성은 개념들을 산출하는 능력이며, 지성개념들은 감성을 통해 주어진 서로 다른 직관표상들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통일성을 부여한다. 개별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보편적 인식으로 끌어올리는 지성개념들은 선험적 지성개념들로서, 칸트는 이 개념들을 가능한 경험들의 원칙이자 자연의 보편적 원칙들이라고 규정한다.<sup>48</sup> 선험적 지성개념들이 자연의 원칙들이라 불릴 수 있는 까닭은 인식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언제나 감성형식을 통해 주어지며, 이에 따라 자연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현상들의 총괄이자 지성에 의한 규칙들의 총괄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sup>49</sup>. 그리하여 지성은 “감관의 객관인 자연에 대해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적이며, 가능한 경험에서 자연의 이론적 인식을 위한”(KU 195) 능력으로 규정되는바, 지성은 자신이 부여한 법칙에 따라 자연을 인식하는 한에서 합법칙성을 원리로 삼는 능력이다.

자연을 규정하는 보편적 법칙들은 자연 스스로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지성이 부여한 법칙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의 원칙들을 현상들로서의 자연에만 적용할 뿐 가능한 경험들의 통일로서의 자연 일반을 인식할 수 없다. 그리하여 현상으로서의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법칙들이자 사물들 그 자체의 법칙들은 지성의 영역인 감성계가 아니라 초감성적인 것과 관계하는 이성의 영역, 즉 예지계에 머무는 것으로 상정된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감성계와 예지계의 분리 및 경험대상으로서의

<sup>48</sup> P 300-306 참조.

<sup>49</sup> 칸트는 자연을 “모든 현상들의 총괄”(KrV B163)이자 “모든 가능한 경험의 객관”(KrV A114)이라 표현한다.

자연에 제한되는 지성 인식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초월적 이념들을 제시한다<sup>50</sup>. 초월적 이념들이란 우리 이성 안에 근거를 갖는 개념들이자 순전한 사유물로서 우리의 지성 사용에 체계적 통일의 원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칸트는 전체성의 이념으로서 무조건자(Unbedingte), 다시 말해 “한 상태를, 그러니까 이 상태의 결과들의 계열을 절대적으로 시작하는 능력”(KrV A445/B473)인 자유를 자연 원인으로 상정함으로써 현상들의 계열을 완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유는 그것에 선행하는 상태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인과법칙에 어긋나는바, 자유는 “어떠한 경험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공허한 사유물”(KrV A447/B475)로 남는다. 이에 따라 현상들로서의 자연과 사유물로서의 자유의 통일은 생각되는 것에 그칠 뿐 진정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

칸트는 이러한 통일의 과제를 『판단력비판』의 전체 기획으로 삼는다. 『판단력비판』에서 그는 현상과 이념 사이의 심연(深淵, Kluft)을 반성적 판단력<sup>51</sup>의 원리이자 산물인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통해 매개하고자 시도한다. 반성적 판단력은 경험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잡다 속에서 법칙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칙은 경험을 아우르는 것이자 동시에 그 근거를 반성적 판단력 안에만 두는 까닭에, 이것은 경험을 필연적으로 통일하는 하나의 초월적 원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을 그 원리로 내세우는바, 합목적성 원리는 자연의 잡다한 현상들의 법칙을 위해 상정된 체계이다.

경험적 법칙들 일반 아래에 있는 자연의 사물들의 형식과 관련하여  
판단력의 원리는 자연의 잡다함 속의 자연의 합목적성이다. 다시 말해,

<sup>50</sup> 『순수이성비판』 ‘초월적 이념들에 대하여’ 절 참조.

<sup>51</sup> 판단력 일반은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로 포함시키는 능력으로서,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으로 구성된다. 규정적 판단력은 보편적인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특수한 것을 그 아래로 포섭하는 능력이다. 규정적 판단력에는 이미 지성의 초월적 법칙들이 주어져 있는 까닭에 고유한 법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반성적 판단력은 특수한 것만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위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해 내는 능력이다. 그런데 반성적 판단력에는 자연 안의 잡다한 것을 통일할 원리가 주어져 있지 않은 까닭에 그 원리를 스스로 세워야 한다. 그러한 원리가 곧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서만 도출되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다. KU 179-180 참조.

자연은 이 개념에 의해 마치 지성이 잡다한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의 통일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처럼 표상되는 것이다.<sup>52</sup>

반성적 판단력은 합목적성을 원리로 삼아 자연의 경험적인 법칙들이 우리 인식능력에 알맞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수한 법칙들에 따르는 자연의 질서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력에 알맞다는 사실은 우연적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들의 통일성인 합목적성을 자연 안에 집어넣고자 의도하며 그 의도의 달성은 오직 쾌의 감정을 통해 확인<sup>53</sup>할 수 있다.

그런데 쾌·불쾌 감정은 “하나의 표상에서 전혀 인식의 요소가 될 수 없는 주관적인 면”(KU 189)이며, 우리는 그 표상으로부터 객관의 성질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쾌와 관계하는 표상은 오직 주관과만 관계맺는다. 이에 따라 칸트는 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쾌는 다름 아니라 객관이 반성적 판단력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 안에 있는 한에서의 인식능력들에 대한 적합성을, 그러므로 한낱 객관의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형식들을 상상력으로 저렇게 포착해 들어감은 반성적 판단력이, 무의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형식들을 직관들을 개념들에 관계시키는 자기의 능력[상상력]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sup>54</sup>

요컨대 쾌감은 객관과 우리 인식능력들이 서로 부합함을 표현한다. 쾌감의 통해 확인되는 객관과 인식능력들의 적합성이 대상들의 형식을 포착하는 상상력에 의해 확인된다는 점은 곧 반성적 판단력에서 상상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드러낸다. 반성적 상상력에서 상상력의 포착 활동은 인식판단에서

---

<sup>52</sup> KU 180-181.

<sup>53</sup> “그래서 이 연구[자연의 다종다양한 법칙들을 합목적성 아래 포섭하는 것]가 성공하면, 우리가 한낱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한, 그러한 고차적인 법칙들의 우리 인식들에 대한 일치에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 KU 188.

<sup>54</sup> KU 190-191.

직관과 개념들을 결합하는 종합 활동과 구분된다. 인식판단에서 상상력은 합법칙성에 따라 지성과 객관적 합치를 이루었음에 반해, 취미판단에서의 상상력은 합목적성을 통해 지성과 주관적 합치를 수립한다. 주관적 합치는 곧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로서 특정 개념과 무관하기에 대상의 인식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쾌감의 산출을 통해 확인되는 대상의 표상과 주관능력들 간의 합치는 곧 개별 자연들도 우리의 이해력에 적합하다는 자연의 합목적성의 발견을 뜻한다.

정리하면, 지성은 현상으로서의 자연 일반의 원칙들과 관계한다. 그러나 지성이 세운 보편적인 법칙들만으로는 자연의 경험적이고 개별적인 잡다를 아우를 수 없는 까닭에 우리는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을 추적할 수 있는 반성적 판단력을 요청한다. 그리하여 자연에 대한 인식은 지성에 따른 자연 일반의 원칙과 판단력에 따른 경험 일반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경험적인 것들과 관계하는 자연의 질서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법칙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잡다를 통일하는 하나의 필연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 원리는 경험적인 법칙들을 통일하는 초월적 원리여야만 하는 까닭에 현상과 관계하는 지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험 일반의 초월적 원리는 특수로부터 보편을 탐색하는 반성적 판단력 내에서만 찾아지며, 이것이 곧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인 합목적성이다. 요컨대 합목적성 원리는 자연의 특수한 것들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것들의 통일된 체계도 포함한다. 이러한 체계는 지성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가능한 경험들의 통일로서 합법칙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바, 초월적 합목적성 원리를 통해 우리 인식의 체계가 완성된다.

이러한 합목적성은 오직 쾌의 감정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까닭인즉, 합목적성은 초월적 원리로서 객관의 성질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합목적성과 관계하는 쾌감은 주관적 감정으로서 지성의 보편적 자연개념들의 발견을 통해서만 느낄 수 없다. 지성개념들은 대상의 성질에 관한 객관적인 인식인 까닭에 주관의 상태인 쾌감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쾌감을 산출하는 과정은 선험적 개념이 부재한, 그리고 표상을 감정과 관계시킬 수 있는 상상력, 즉 미감적 상상력에게 부여된다. 취미판단에서 상상력은 지성개념에 맞추어 잡다를 종합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자유롭다. 대신 상상력은 주어진 대상의 형식을 자유로이 포착하되 이 형식을 통해 지성과 유희한다. 이러한 유희는 곧 주어진 객관표상이 두 인식능력에 적합함을, 다시 말해 개별적이고 특수한 자연들이 그로부터 보편성을 발견해내려는 우리의 필요에 합치함을 의미하며 이는 쾌감의 산출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쾌감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자연들의 체계, 즉 자연의 합목적성의 가능성을 확인해주며, 이는 곧 자연 일반만을 구성하는 합법칙성의 완성을 의미한다.

### 3. 숭고에서의 상상력

자연 표상을 판정함에 있어 주관의 마음이 동요할 경우 그 표상은 숭고한 것이라 불리운다. 이러한 마음의 동요 역시 흡족의 감정으로 귀결됨에 따라 숭고판단은 취미판단과 함께 미감적 판단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숭고한 것에서의 흡족과 미적인 것의 흡족은 동일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 까닭인즉 취미판단에서는 쾌감이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만, 숭고판단에서는 무한정성이 표상됨에 따라 현시하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이 좌절함으로써 “내포적, 즉 부정적 쾌”(KU 245)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숭고에서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쾌는 생명력들이 일순간 저지되어 있다가 곧장 뒤이어 한층 더 강화되어 범람하는 감정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감동으로서, 상상력의 활동에서 유희가 아니라 엄숙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곳)

숭고판단에서 쾌가 발생함에도 상상력이 유희하지 않는 이유는 숭고한 것이 오직 이성 이념들과만 관계하기 때문이다. 이념은 우리의 감성적 형식에 부적합한 소재로 현시가 불가능한 까닭에 상상력은 숭고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표상으로부터 지성과 합치할 수 있는 어떠한 형식도 도출해내지 못한다. 그리하여 숭고한 것에서 상상력은 포착에 실패하며 이는 곧 합목적성의 성립 조건인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가 수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숭고의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은 우리 판단력에 대해 반목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취미판단에서의 쾌감이 지시하는 자연의 합목적성을 통해 지성개념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현상들의 체계를 확인한다. 그런데 숭고판단에서 마주하는 것은 혼돈, 무질서, 크기, 위력으로서 그것들은 우리 인식능력에 대한 자연의 합목적성을 지시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취미론에 이어 숭고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숭고를 통해 주관 안의 합목적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 안의 합목적성을 다루는 숭고는 자연의 합목적성을 다루는 미감적 판단력에서 “부록”<sup>55</sup>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주관의 합목적성은 “자연의 표상에 대한 상상력의 합목적적 사용”(KU 246)을 지시해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숭고한 것이 제공하는 직관들과 상상력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숭고판단은 미감적 반성적 판단력의 한 종류로서 취미판단과 마찬가지로 합목적성과 관계한다. 그러나 합목적성이 도출되는 양상에서 두 판단은 차이를 보인다. 취미판단은 객관의 형식에 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우리 상태는 관조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에 숭고판단에서는 숭고한 것의 특징인 무형식성으로 인해 대상 판정을 수행함에 있어 마음이 동요한다. 이 마음의 동요 덕분에 상상력은 “인식능력 또는 욕구능력과 관계”(KU 247)하는데<sup>56</sup>, 주어진 표상의 합목적성은 상상력이 관계맺는 이 능력들에 관해 판정된다. 숭고론에서 다루지는 인식능력은 지성이 아니라 이념들의 능력인 이성으로서, 무한자의 이념을 내포하는 대상을 마주하는 경우 상상력은 이성과 관계한다. 이러한 대상은 “단적으로 큰 것”(KU 248)으로서 어떠한 비교대상도 가지지 않으며, 측정 단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는 현상들에서 대상의 크기를 판단할 때는 단위를 필요로 하지만, 현상들의

---

<sup>55</sup> “...이 주의는 숭고한 것의 이념들을 자연의 합목적성의 이념과 전적으로 분리시키고, 숭고한 것에 대한 이론을 자연의 합목적성에 대한 미감적 판정의 한낱 부록으로 만드는 바이다.” KU 246.

<sup>56</sup> 칸트는 상상력이 관계맺는 능력의 종류에 따라 숭고한 것을 인식능력과 관계하는 수학적 숭고와 욕구능력과 관계하는 역학적 숭고로 구분한다. 본고는 상상력이 다른 인식능력들과 관계맺음으로써 그 산출물이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상상력과 욕구능력 간의 관계가 나타나는 역학적 숭고는 다루지 않는다.



크기 규정만으로는 “어떤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을 결코 제공할 수”(같은 곳) 없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비교의 척도를 주관에서, 정확하게는 반성하는 주관 안에서 찾는다.

그러나 비교의 척도가 주관에서 주어진다 하더라도 숭고판단은 취미판단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동의를 요구한다. 숭고판단의 보편적 전달 가능성의 근거는 숭고한 것에 대한 우리 인식능력들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흡족의 성질, 다시 말해 “상상력 그 자체의 확장에 대한 흡족”(KU 249)의 특성에 있다. 어떤 대상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그 대상의 직관을 포착하고 총괄해야 한다. 포착은 주어진 잡다를 차례대로 지각하는 것으로서 한계가 없으나, 포착된 직관들을 하나로 엮는 총괄작용은 직관의 모든 표상들을 포괄하는데 한계<sup>57</sup>가 있다. 한계에 봉착한 상상력은 그 대상을 현시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에서 상상력은 “감동적 흡족”(KU B88) 상태에 놓임에 따라 숭고의 대상은 우리 주관에 함목적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숭고에서 발견되는 주관적 함목적성은 주관 안에 “무한한 것을 하나의 전체로서 생각”(KU B92)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단적으로 큰 대상에서 우리는 감각의 척도를 뛰어넘는 것, 즉 무한자의 이념을 마주한다. 그리하여 숭고판단에서 상상력은 무한자를 총괄할 수 없다는 것을, 즉 이성이념의 현시는 자신의 한계 너머에 있음을 불쾌의 감정을 통해 표명한다. 그럼에도 숭고한 대상은 우리 안에 무한자와 관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음을 일깨움으로써 간접적 쾌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숭고판단에서의 상상력은 “자기의 제한과 부적합성을 표명”(KU B97)하고, “이성에 의한 평가에 부적합”(같은 곳)함으로써 이성과 상충하지만, 주관 안에 이성을 일깨울 수 있음에 따라 우리는 숭고한 것에서 흡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이 언제나 이성이념들을 현시하는데 좌절하는 것은 아니다.

---

<sup>57</sup> 칸트는 피라미드를 예시로 총괄 작용을 실패에 대해 설명한다. 만약 우리가 피라미드를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서 본다면, 피라미드 전체를 한 번에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순차적으로 부분들을 포착하면서 총괄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처음에 보았던 표상들의 일부가 소실되는 탓에 칸트는 상상력의 총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KU 252 참조.

오히려 천재에서 상상력은 “주어진 대상의 표상”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경험에서 주어졌던 모든 감각표상들을 활용하여 이성개념들에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하고자 애쓴다. 그리하여 숭고에서 확인되는 상상력과 이성이념들 간의 반목적적인 관계는 부정적, 간접적 쾌를 일으키는데 그치는 반면 천재에서 상상력은 이념과 결부되어 생기를 불러일으킨다<sup>58</sup>. 이에 따라 숭고에 관한 논의가 취미판단과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sup>59</sup> 상상력과 이념들 간의 합목적적인 관계가 부각되지 않으며, 숭고에 관한 논의를 천재와 분리시켜 논하는 경우<sup>60</sup> 숭고론이 취미론과 천재론 사이에 삽입된 근거 및 숭고론이 부록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어렵다. 미감적 판단력 내에서 상상력의 활동은 합목적성을 원리로 삼으며 이 합목적성은 자연과 자유의 매개를 위해 요청되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임을 고려할 때, 주관 능력의 확인에 그치는 숭고는 미감적 판단력의 부록에 해당한다. 하지만 숭고론을 통해 감성계에서 시작하는 상상력이 이성이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며, 이로부터 대상을 판정하는 취미론에서 미감적 이념을 현시하는 천재론으로의 연결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숭고론의 위치가 재해석될 수 있다.

---

<sup>58</sup> 천재와 이성이념들 간의 관계는 본고3장 2절 ‘천재에서의 상상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sup>59</sup> 김상현(2006), 13-21쪽.

<sup>60</sup> S. Gibbons, *Kant's Theory of Imagination*, Oxford : Clarendon Press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2002 printing).

### III. 자유로운 상상력

III장에서는 상상력의 자유가 어떤 원리에도 규제받지 않는 환상적 상상력에서 무제한적으로 펼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물인 광상과 환상은 보편성을 함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는 이념을 현시하고 지성개념을 확장하는 천재에서 발휘됨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천재의 상상력은 이성이념들을 감관표상들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현상계와 예지계의 매개를 실현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1절은 광상과 환상을 생산해내는 상상력, 즉 환상적 상상력은 생산적 상상력으로 분류되지만 그 산물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않는 이유를 선험적 원리의 부재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2절은 천재의 상상력은 원본성 및 범례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점에서 환상적 상상력과 구분됨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취미판단과 천재에서의 상상력을 표상들의 범위 및 지성개념과의 관계의 측면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는 모든 감관표상들을 활용하고 지성개념들을 확장하는 천재에서 발휘됨을 주장할 것이다. 3절은 천재에서의 상상력이 이념에게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하는 데 성공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자연과 자유의 매개가 천재에서 실현됨을 보이하고자 한다.

#### 1. 환상적 상상력의 한계

승고한 것에서 상상력은 지성개념에 적합한 자연 형식들을 찾아낼 수 없는 까닭에 대상의 총괄에 실패하며, 무한자로서의 이성이념들을 현시하는데도 부적합함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상상력은 무한자의 크기를 위한 척도를 주관의 내부에서 찾으려고 애쓰며, 이를 통해 “상상력 그 자체의 확장”이(KU 249) 일어난다. 지성개념, 즉 초감성적인 것을 향한 상상력의 확장이 가능한 이유는 “본래 우리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기(KU 257) 때문이다. 경험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상상력의 특성은 승고 외에도 지성과의 합치 및 천재의 독창성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등장한다. 이에

본고는 비판전기와 초월철학의 구분에 따르는 대신, 상상력의 독자적인 활동에 관한 칸트의 서술들을 한데 모아 분석함으로써 규제받지 않는 상상력의 가능성 및 한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상상력이 이념과 관계하지 않음에도 경험의 경계 안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상력에는 고유한 선험적인 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상력은 감관표상들을 자유로이 가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그 활동이 특정 영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인식론, 취미론, 숭고론에서 상상력은 합법칙성이나 합목적성의 규제 하에 지성이나 이성과 관계하는 까닭에 감성계와 예지계를 자유로이 넘나들지는 못한다. 대신 상상력의 무제한적인 활동가능성은 상상력의 독자적인 산물인 광상이나 환상에서 나타난다. 광상(Schwärmerei)은 상상력이 지성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감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한다. 칸트는 광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상상력이 때때로 광상에 빠질 때, 다시 말해 조심성 있게 경험의 경계 안에 머무르지 못할 때, 그것은 어쩌면 용서될 수 있을 것이다.<sup>61</sup>

상상력의 독창성은, 만약 그것이 개념들과 합치한다면, 천재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개념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광상이라 일컬어진다.<sup>62</sup>

이처럼 광상에서 상상력은 개념들과 합치하지 않는, 즉 다른 인식능력과의 관계없이 상상력이 홀로 발휘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상력의 독자적인 활동이 칸트 철학 내에서 완전히 배척되지 않는 까닭은 첫째 지성에 의해 그 한계가 정해질 수 있으며, 둘째 그 비약을 통해 스스로 “생기를 얻고 강화”(P 317)되기 때문이다.

상상력의 유희가 부지 중에 일어남으로써 만들어지는 환상(Phantasie)도 광상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에 활기를 부여한다. 생산적 상상력의 창작성과 관련하여 『인간학』에서 환상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

<sup>61</sup> P 317.

<sup>62</sup> Anth 172.

예술가가 어떤 물체적 형태를 (말하자면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현시할 수 있기 전에, 그는 그 형태를 상상력 안에서 작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때 이 형태는 하나의 창작이다. 이 창작이 (가령 꿈에서와 같이) 의사 없이 된 것이면 환상이라고 일컬어지며, 그것은 예술가와는 상관없다. ...

수면 중에 환상이 인간과 하는 유희가 꿈이며, 그것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일어난다.<sup>63</sup>

이로부터 환상은 주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상력의 독자적인 활동임을 확인된다. 이러한 환상 개념은 『판단력비판』에서도 등장한다. 미의 분석학에 대한 일반적 주해에서 환상은 대상을 조망함으로써 주관 안에서 일어나는 유희활동으로 서술되는바, 표상들을 자유로이 가공하고 또 이로부터 마음이 각성됨으로써 상상력은 고무된다.<sup>64</sup> 꿈에 관한 언급은 자연목적론에 관한 서술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상상력은 꿈을 통해 생명기관들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sup>65</sup> 이처럼 상상력은 지성이나 이성과 관계하지 않고도 단독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주관에 생기를 북돋운다. 그러나 규제적 원리가 없는 상상력의 표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는 까닭에 인식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칸트가 환상과 광상을 산출하는 상상력에도 생산적 상상력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을<sup>66</sup> 고려하여, 이러한 상상력을 ‘환상적 상상력’이라 규정한 후 그것이 갖는 한계와 의의를 살펴보자.

상상력은 광상에 빠지더라도 지성에 의해 제약받을 수 있는 까닭에 때때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이 무제한적인 활기를 얻은 채 예지계와 관계맺으려 할 경우 이것은 이념들을 우스꽝스럽거나 유치하게 현시하는 망상을 초래한다. 더욱이 광상에 빠진 상상력이 지성을 추동하여 지성을 광신(狂信)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가능한 경험의 영역에

---

<sup>63</sup> Anth 174-175.

<sup>64</sup> KU 243-244.

<sup>65</sup> KU 380.

<sup>66</sup> Anth 172.

원칙을 부여하는 지성이 그 자율성을 경험 너머에 까지 발휘하고자 시도하지만 이는 “결실 없는 시도들”(P 317) 불과하다. 칸트는 이러한 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광상은 감성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보려는, 다시 말해 원칙들에 따라서 꿈꾸(즉 이성을 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고자 하는 망상(Wahn)이다 - …… 걱정으로서의 열광에서 상상력은 고삐가 없지만, 뿌리깊은 격렬한 열정으로서 광상에서 상상력은 규칙이 없다. 전자는 아주 건전한 지성에서도 가끔 능히 있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일이지만, 후자는 지성을 착란시키는 일종의 병이다.<sup>67</sup>

광상에 빠진 상상력은 예지계 너머를 제멋대로 표상하려 한다. 걱정적으로 날뛰는 광상은 어떠한 이념과도 결부되지 않는 까닭에 숭고판단에서 상상력이 이념의 현시에 좌절하면서도 자신을 확장함으로써 감동이나 쾌를 낳는 것과 결코 화합될 수 없다.

환상은 우리의 의식상태에 따라 주관에 미치는 효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수면 중에 환상은 꿈의 형태로 나타난다. 꿈을 통해 우리는 수면 중에도 생명력을 유지한다.<sup>68</sup> 그러나 만약 깨어 있을 때도 환상의 상태에 빠져있다면 그것은 “병적 상태를 노정하는 것”이다(Anth 175). 또한 환상에는 거짓말도 포함된다. 이 경우 환상은 재미 이외에는 어떤 이익도 없으며 상습적인 거짓말은 “유전적 질병”(Anth 180)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칸트는 이러한 환상적 상상력의 오류가 상상력의 창작성을 규제하는 원리의 부재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한다.

상상력의 허물은 그것의 창작에 한갓 고삐가 없다거나 전혀 규칙이 없다는 점이다. 후자의 과실은 최악이다. 전자의 창작들은 그래도 가능한 (우화의) 세계에서라도 그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sup>67</sup> KU 275.

<sup>68</sup> 칸트는 모든 동식물들은 수면 중에 외적 지각의 능력 및 운동들을 이완시키지만 꿈이 없다면 영원히 깊은 수면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서술한다. Anth 175 참조.

그러나 후자의 것들은 전혀 어떤 세계에서라도 그 자리를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모순적이기 때문이다.<sup>69</sup>

여기서 고삐가 없는 상상력은 예지계를 넘나드는 상상력으로서 시인의 공상이 이에 속한다. 규칙이 없는 상상력은 자기 통제를 넘어서는 상상력으로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무언가가 긍정되는 동시에 부정되는 대립으로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지닌 스팅크스를 두고 밤이 되면 스팅크스가 피라미드 주변을 날아다닌다고 해석한다면 고삐가 풀린 것이다. 그러나 스팅크스를 파라오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말하다가도 갑자기 피라미드 안에 누운 파라오라고 두서없이 설명하는 것은 규칙이 없는 경우에 속한다.

정리하면, 환상적 상상력은 그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지만, 그 산물은 주관에게 알려주는 바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환상적 상상력은 그것을 제재할 선험적 원리가 부재하는 까닭에 어느 인식능력과도 관계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상상력의 표상들은 어떠한 보편성도 함유하지 못한다. 이는 곧 상상력이 인식능력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하기에, 환상적 상상력의 무의미한 생산물은 비판철학 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힘들다. 그럼에도 취미나 숭고와 관련하여 환상과 광상이 언급이 등장하는 까닭은 이러한 환상적 상상력의 산물을 통해 상상력의 무제한적인 활동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숭고론에서 상상력은 무한자의 이념을 현시하는데 좌절함으로써 자신의 경계를 확장하지만 본래 상상력은 그러한 좌절 없이도 감성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하여 상상력은 능동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이념과 관계맺을 수도 있는바, 그러한 이념의 현시가능성이 천재에서 논의된다.

---

<sup>69</sup> Anth 181. 칸트는 리비아 사막에 돌로된 형상을 예시로 든다. 그 형상을 저주에 의해 화석화된 인간으로 보는 것은 고삐가 없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부활의 날에 조각상들이 영혼을 불어넣지 않았다고 예술가에게 호통치는 경우는 규칙이 없는 경우이다.

## 2. 천재에서의 상상력

『판단력비판』 49절에 따르면, 천재를 이루는 능력은 미감적 이념들을 현시하는 상상력이다. 천재의 상상력은 현실적인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표상들을 자유로이 가공하고 개조하여 “또 다른 자연을 창조”(KU 314)해낸다. 대상을 판정하는, 즉 규제받는 상상력과 달리 천재의 상상력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표상들을 선택 및 산출할 뿐만 아니라 이념과 관계맺음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함에 따라 그 창조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인간학』에서는 상상력의 창조성이 다르게 해석된다. 28절에서 상상력은 인식능력의 한 부분으로서 “대상의 현전 없이도 직관하는 능력”(Anth 167)으로 규정되며, 대상을 근원적으로 현시하는 생산적 상상력과 파생적으로 현시하는 재생적 상상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까지는 비판기에서의 상상력에 대한 규정과 비판 전기에서의 입장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생산적 상상력의 창조성에 대해서는 상이한 시각이 나타난다. 먼저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을 다루는 28절에서는 창조성이 부정된다. 여기서는 대상을 근원적으로 현시하는 상상력이 경험에 선행하여 대상을 현시할 때조차 이전에 경험했던 감관표상들을 바탕으로 상을 만들어내는 까닭에 창조적인 능력이 아니라 창작적인 능력으로 규정된다. 뒤이어 생산적 상상력의 창작성에 관한 30절에서 상상력의 원본성은 개념들과 합치할 경우 천재라고 불리지만, 그 창작의 재료는 언제나 감관에서 경험했던 바에 따르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달리 인식능력들의 세 가지 재능들(생산적 기지, 총명, 사고에서의 원본성) 중 천재에 관한 부분인 57절에서 상상력은 창조적 능력으로 규정된다. 이 절에서 천재 능력은 “인식능력들의 원본성”(Anth 224)이라 불리며, 어떤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드는 능력으로 서술된다. 더욱이 이러한 천재의 원본성은 상상력에서 비롯하는 특징이며, 이 때 상상력은 창작적인 생산적 상상력과 달리 창조적인 능력이다.

천재를 위한 원래의 분야는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창조적인 것으로서,



다른 능력들보다 더 적게 규칙들의 강제 아래에 놓이지만, 그러나  
그럼으로써 그만큼 더 원본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70</sup>

앞서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에 관한 절에서 창작적인 상상력은 개념들과  
합치할 때만 천재라고 불릴 수 있으며 경험표상과 관계하기에 창조적일 수  
없다고 서술했다. 이는 창조적이라 일컬어지는 천재에 관한 내용과  
상충한다. 이러한 모순은 상상력이 관여하는 활동을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와 대상을 생산하는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분을 통해 환상이 아닌 천재의 산물에서만 창조성이 인정되는 이유가  
범례성에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는 합목적성을 원리로  
삼으면서도 독창적인 것을 생산하는 천재에 있음을, 나아가 비판  
전기에서의 상상력 개념이 비판 철학에서 개념과 일맥상통함을 확인해보자.

I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상력은 직관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감성과  
유사하며, 능동성과 자발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는 지성과 닮았다. 또한  
상상력은 대상의 표상을 받아들이고 재생하는 수동적 성격도 가지지만  
주어진 표상 없이도 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생산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상상력의 이러한 수동성과 능동성의 측면을 지금껏 살펴본 상상력의  
활동들에 적용해보면, 인식, 취미, 숭고에 관여하는 상상력은 주어진 대상의  
표상과 관계하여 판단을 행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반면 환상과 천재에서의  
상상력은 우리 안의 감관표상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대상의 표상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능동적이다. 이에 따라 판단에 관여하는 상상력, 즉  
대상의 ‘인식’능력으로서의 생산적 상상력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없다. 반면  
천재의 상상력은 무엇인가를 ‘생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인식능력이다.  
천재라는 명칭은 근원적이고 범례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서, 천재의 산물은 “본보기로서 모방할 만한 가치”(Anth  
224)있다. 그러나 천재의 능력이 ‘인식능력’의 원본성으로 칭해지는 까닭은  
“모든 예술은 그 산물과 근처에 놓인 이념과의 부합”(Anth 225)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상력이 그러한 진리성 없이 무규칙적으로 날뛰는  
경우에는 광기에 이를 뿐 범례적인 것을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천재의

---

<sup>70</sup> Anth 224-225

상상력은 예지계에 놓인 이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식능력으로서의 가치를, 그리고 이를 현시한다는 점에서 생산능력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창조적인 능력이다.

판단과 생산에 관여하는 상상력의 구분은 미감적 상상력의 산물인 취미와 천재 간의 분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상력의 자유를 논하는 입장은 대개 취미에서의 상상력과 천재의 상상력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미감적 판단력에서의 상상력의 자유가 지성의 규칙의 제한에서 벗어나 자발성을 발휘하며 보편적 표상을 산출한다는 점에 근거한다<sup>71</sup>. 미감적 상상력의 활동이 합목적성을 원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취미와 천재 모두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다. 취미에서의 상상력이 주어진 대상의 표상을 소재로 임의적인 형식을 만들어냄에 따라 상상력의 자발성 및 능동성은 긍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상력이 취하는 소재는 하나의 특정 대상의 표상에 제한되어 있으며,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는 그 표상의 형식에 한해서 이루어진다. 반면 천재의 상상력은 주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관표상들을 사용하며, 이념들과 관계맺기 위해 하나의 개념에 수많은 연관 표상들을 부여함으로써 “충전하게 현시될 수 없는 하나의 대상의 (미감적) 상징속성”(KU 315)들을 그 개념에 부가한다. 천재에서의 이러한 생산적인 면모는 주어진 대상으로부터 표상을 취하는, 즉 판단을 행하는 취미에는 주어질 수 없기에 취미에서의 상상력과 천재에서의 상상력은 차이를 보인다.

다만 능동성과 수동성의 구분만으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환상적 상상력의 산물들에서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단력비판』 46절에서 논의되는 천재의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천재는 예술에 규칙을 주는

---

<sup>71</sup> 김상현은 상상력을 인식능력이라는 틀 내에서 도식 산출능력이라 규정한 후 취미 판단에서의 상상력과 예술에서의 상상력을 새로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규정한다.-김상현(2006), 15쪽. 금빛내림은 취미와 천재 양자 모두 임의적 형식을 생산해내며, 보다 구체적으로 취미는 아름다운 것을, 천재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취미와 천재를 평가능력과 생산능력으로 나누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지적한다. 금빛내림, 「칸트의 천재 개념의 전개」, 『美學·藝術學研究』, 19권, 2004, 227-266쪽.

재능”(KU 307)으로서, 원본성, 범례성, 설명불가능성, 비학문성을 특징으로 가진다. 이러한 특성이 필요한 까닭은 첫째 천재는 모방의 능력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도 도달할 수 없지만, 둘째 천재를 통해 자연은 예술에게 규칙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천재의 산물은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계승의 대상으로서, 예술가들은 그에 비추어 자신의 재능을 가늠해볼 수 있다. 환상적 상상력의 산물들인 광상과 환상의 경우 지성개념이나 이성이념과 무관한 까닭에 범례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에 그 창작성과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환상적 상상력은 “아주 거북하게 우리와 유익한다”(Anth 175).

앞서 인식능력들의 재능에 관한 구절을 상기해보면, 창조적인 상상력은 다른 능력들보다 규칙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만큼 원본성을 보이지만 이념과의 합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원본성은 모든 규칙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III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감적 상상력은 합목적성을 원리로 다른 인식능력들과 관계맺음으로써 보편타당성을 취한다. 이와 달리 천재는 이념과 관계하고 그에 따라 범례성을 취함으로써 보편성을 갖춘다. 그렇기에 환상적 상상력에서와 같이 상상력이 방종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상상력이 천재의 능력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때는 약간의 규칙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이 곧 천재의 특징들에서 이야기되는 자연의 규칙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규칙은 지성개념을 통해 규정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설명불가능성과 비학문성이라는 특성이 천재에 부여되는바, 천재는 “자연으로서 규칙을 주는 것”(KU 308)이다. 즉, 천재는 이념들을 떠올리고 있지만 그것들을 규정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천재는 이념과의 합치라는 규칙을, 다시 말해 천재에서의 상상력은 합목적성 원리에 따라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천재의 상상력은 지성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울 때도 환상이나 광상으로 나아가지 않음이 설명된다.

### 3. 미감적 이념의 현시: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

칸트에게서 자유는 초월적 이념으로서 지성이 합법칙성의 계열을

완성하기 위해 상정했던 무조건자<sup>72</sup>이다. 하지만 자유는 자연의 법칙인 인과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자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자유의 현실성은 증명될 수 없다. 이처럼 분할된 지성과 이성의 관할구역, 즉 현상계와 예지계를 매개하는 것이 『판단력비판』에 주어진 과제이며, 그 해결 가능성은 II장 2절에서 검토하였던 것처럼 쾌감을 통한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의 발견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취미판단은 객관과 인식능력들 간의 적합성을 발견하는데 그치는 탓에, 자유의 영역인 예지계와 현상계의 매개는 가능성으로만 남겨져 있다. 천재의 상상력은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능력으로서 “이성이념들에게 객관적 실재성의 외양”(KU 314)을 부여한다. 천재의 상상력은 “미감적 이념들을 현시하는 능력”(같은 곳)이며, 그러한 현시를 통해 상상력과 지성의 합목적성, 즉 “스스로 유지해가며 또 그러한 힘들을 스스로 증강해가는 유희”(KU 313)가 일어난다. 이념의 현시와 마음의 힘들의 유희가 천재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자연과 자유의 매개라는 과제의 실현을 어떻게 완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가 천재에서 발휘되는 근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재생적 상상력을 제외한 모든 상상력은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능력으로 분류되지만, 각각의 산물에서 발휘되는 상상력의 자유로운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 초월적 상상력의 경우 지성의 규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환상적 상상력은 방만(放漫)한 탓에 인식능력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반면 미감적 상상력은 지성개념의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다른 인식능력들과 관계함으로써 보편성을 담지한다. 이에 따라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동은 미감적 상상력에서만 가치를 지닌다. 다만 미감적 상상력의 산물들에서도 상상력의 자유가 발휘되는 정도는 상이하다. 취미판단에서 상상력은 지성과 자유로이 유희하지만 주어진 대상의 표상들을 질료로 삼음으로써 가능한 경험에 머물며, 숭고판단에서는 총괄에 실패함으로써 주관 안의 이성능력을

<sup>72</sup> 현상에서의 무조건적 원인성으로서의 자유는 『순수이성비판』 내 순수 이성의 세 번째 이율배반에서 다뤄지는 논제이다. 여기서 자유는 “현상에서 원인의 무조건적 원인성”(KrV B447)이자 초월적 이념으로 규정된다.

일깨우지만 예지계를 표상하는데 이르지 못한다. 상상력은 천재에서야 비로소 현실적인 자연으로부터 얻은 표상들을 모두 활용하여 이성이념들의 감성화에 성공한다. 그리하여 천재에서 발휘되는 상상력의 자유는 예지계에 상정된 자유 이념과 관계맺을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처럼 상상력의 자유로운 활동이 현상계 및 예지계에 걸쳐있을 수 있는 까닭은 그것에 선험적 원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성의 경우 합법칙성의 규제 하에 현상계와 관계하고 이성의 경우 궁극목적의 지향함으로써 예지계에 근거한다면, 상상력은 자신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시하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그 대상을 자연에서의 객관들뿐만 아니라 이념들까지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은 자신의 결과물을 현상계에서 제공하는 까닭에 천재의 상상력 조작 이념을 온전하게 현시할 수 없다. 대신 상상력은 특정 개념을 현시하면서도 그 개념에 수많은 표상들을 덧붙임으로써 “그 개념 자신을 무제한하게 미감적으로 확장”(KU 315)한다. 개념에 부가된 표상들은 “(미감적)상징속성들”(같은 곳)로서, 이러한 상징속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환기시켜주고 유사한 표상들에 대한 전망을 우리 안에 펼쳐줌으로써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를 통해 상상력은 어떤 개념 자체를 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안에 포괄될 수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 경우 어떤 개념이나 대상들도 상징속성이 될 수 있지만 오직 상상력만이 수많은 표상들을 부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상력이 사용하는 표상들은 언제나 감각들의 표상인 까닭에 그 표상들이 이념과 관계할지라도 그것은 이성이념이 아닌 “미감적”이념이라 불린다. 그리하여 천재에서 생성되는 미감적 이념은 “어떤 주어진 개념에 수반되는 상상력의 표상”(KU 316)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상상력은 천재를 이끄는 능력으로서 이념과 관계하지만, 상상력이 부여하는 수많은 표상들은 현실적인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감각표상들이기에 그것들은 이성이념이 아닌 지성개념에 덧붙여진다. 다만 천재에서의 상상력은 인식에서처럼 개념과의 일치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치를 넘어서 자유로이 활동함으로써 지성개념에 수많은 표상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두 능력들에 활기를 불어일으킨다. 그리하여 천재에서 상상력은

이념들을 현시함에 따라 이성과 합목적적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지성개념들에 무진장한 표상들을 제공함으로써 지성과 자유로이 합치한다. 그리고 천재에서의 상상력의 유희는 독창적이고 범례적인 것을 산출함으로써 이념들의 감성화에 성공함에 따라 자연과 자유의 매개가 상상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칸트 상상력 개념의 특성이 선험적 원리의 부재에 따른 자유에 있음을 분석하고, 상상력의 다양한 활동들을 상상력의 자유가 규제받고 발휘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가 지성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이념을 현시하는 천재에서 발휘됨을, 나아가 『판단력비판』의 과제인 현상계와 예지계의 매개가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초감성적인 것을 표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자유를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이제 결론을 대신하여 본론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비판철학에서 상상력은 감성과 지성의 성격을 모두 지닌 인식능력으로 규정된다. 그리하여 인식론에서 상상력은 인식의 주관적 조건으로서, 취미론과 숭고론에서는 대상의 판정을 이끄는 능력으로서, 천재론에서는 새로운 자연과 규칙을 창조하는 능력으로서 논의된다. 그러나 상상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판철학 내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까닭인즉 상상력은 스스로 법칙을 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유한 선험적 원리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한 원리가 부재하는 덕분에 상상력은 활동구역이 지성처럼 현상계나 이성처럼 예지계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본고는 상상력의 고유성을 선험적 원리의 부재에 따른 자유로움에서 찾은 후 상상력의 자유가 규제되는 정도에 따라 상상력의 활동을 재생적, 초월적, 미감적, 환상적 상상력으로 구분하였다.

인식에 관여하는 재생적 상상력과 초월적 상상력은 각각 연합 법칙과 선험적 합법칙성에 따라 지성인식에 봉사한다. 재생적 상상력이 따르는 연합 법칙은 경험적 법칙들이다. 경험법칙들은 선험적 인식의 가능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이 때의 상상력은 경험표상을 복제하는데 그치는 까닭에 자발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초월적 상상력은 감성과 지성을 결합하는 능력으로서, 순수 지성개념들에 적합하게 직관을 선험적으로 종합한다는 점에서 초월적 성격을 인정받는다.

또한 초월적 상상력은 감각을 형식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성을 발휘하기에 재생적 상상력과 구분된다. 하지만 초월적 상상력은 순수 지성개념들에 맞추어 활동한다는 점에서 지성의 법칙을 따르는, 즉 합법칙성의 규제를 받는 자유롭지 못한 상상력이다.

이와 달리 취미, 숭고, 천재에서의 미감적 상상력은 지성 규칙에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능력이다. 그러나 개개의 경우에서 상상력은 지성이나 이성과 합목적적인 관계를 맺음에 따라 독립적인 자유를 구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판단력비판』에서 상상력의 자유가 논의되는 까닭은 미감적 상상력을 통해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인 합목적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비판철학의 기획은 우리 인식의 선험적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식의 영역은 지성이 구성하는 감성계와 이성이 관장하는 예지계로 분할됨에 따라 그 체계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인 합목적성이 그 해결책으로서 제시된다. 합목적성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자연들의 체계가 우리 인식능력들에 알맞음을 나타내는 선험적 원리이다. 선험적 원리로서의 합목적성은 현상들에만 관계하는 지성으로는 발견될 수 없으며 오직 쾌의 감정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이에 따라 합목적성의 발견은 표상들을 주관의 감정과 관계시킬 수 있는 미감적 상상력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

상상력이 이러한 중책을 맡는 까닭은 천재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천재의 상상력은 지성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지성개념을 확장하는 능력이다. 더욱이 자연은 천재를 통해 규칙을 부여하며, 이러한 규칙은 지성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이처럼 천재론에서 상상력이 지성보다 강조되는 까닭은 상상력만이 감성계와 예지계를 매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재의 상상력은 감각 표상들을 이용하여 이념을 현시함으로써 이성과 합목적적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념으로서의 자유가 감성계에 현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산적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의 진정한 자유는 창조적이면서 새로운 규칙을 드러내는 천재에서 발휘되며, 이러한 상상력은 미감적 이념의 현시를 통해 자연과 자유의 매개가능성을 실현한다.

이처럼 상상력의 자유는 상상력의 고유성일 뿐만 아니라 비판철학에서



상상력이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의 자유는 상상력에게 독자적인 선험적 원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하여 칸트 철학에서 상상력은 그것에 자유가 허용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상상력의 다면성을 상상력의 활동을 규제하는 원리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칸트 철학에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상상력 개념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시도이다. 즉, 상상력의 활동이 인식론, 취미론, 숭고론, 천재론에서 각기 다르게 서술되는 까닭이 상상력의 자유로운 정도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이를 통해 칸트의 상이한 서술들이 상상력의 고유성을 자유에 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함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상상력이 진정한 자유를 발휘하는 천재에서 『판단력비판』의 과제인 자연과 자유의 매개가 미감적 이념의 현시를 통해 실현됨을 확인함으로써 비판철학에서 상상력이 갖는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칸트 철학에서 상상력 개념이 갖는 본유적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 본고의 시도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고는 비판철학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순수이성비판』과 『판단력비판』에서 논의되는 상상력 개념의 체계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 까닭에, 칸트의 전체 사유에서 상상력 개념이 갖는 고유성 및 칸트적 상상력 개념이 갖는 특이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상력의 개념사 및 비판전기에서 논의되는 상상력 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식능력으로서의 상상력 규정을 토대로 상상력의 자유를 논한 본고에서는 욕구능력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자유와 상상력의 자유 간의 차이를 살피지 못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추후에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I. 1차문헌

Kant, Immanuel,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1798), i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Kant's gesammelte Schriften*, Bd.VII, Berlin 1907, 117~333.

-----, *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1787), hrsg. von Jens Timmermann,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98.

-----, *Kritik der Urteilskraft*(1790), hrsg. von Heiner F. Klemme, Felix Meiner Verlag, Hamburg 2009.

-----,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1783), i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Kant's gesammelte Schriften*, Bd. IV, Berlin 1911, 253~383.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 서울: 아카넷, 2014.

-----, 『순수이성비판1,2』, 서울: 아카넷, 2006.

-----, 『판단력비판』, 서울: 아카넷, 2009.

-----, 『형이상학 서설』, 서울: 아카넷, 2012.

### II. 2차문헌

#### 1. 단행본

백종현, 『한국 칸트철학 소사전』, 파주: 아카넷, 2015.

오프리트 회페 (이상현 옮김), 『임마누엘 칸트』, 서울: 문예출판사, 2012.

질 들뢰즈 (서동욱 옮김), 『칸트의 비판철학』, 서울: 민음사, 2006.

크리스티안 헬무트 벤첼 (박배형 옮김), 『칸트 미학: 『판단력 비판』의 주요 개념들과 문제들』, 서울: 그린비, 2012.

프리드리히 카울바하 (백종현 옮김),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파주: 서광사, 1992.

Allison, H. E., *Kant's Theory of Tas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Gibbons. S., *Kant's Theory of Imagination*, Oxford : Clarendon Press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Makkreel. R. A., *Imagination and Interpretation in Kant : the hermeneutical import of the Critique of Judgment*,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Mörchen. H., *Die Einbildungskraft bei Kant*, Tübingen: Niemeyer, 1970.

Rosenberg. J., *Accessing Kant*, Oxford: Clarendon press, 2005

## 2. 논문

금빛내림, 「칸트의 천재 개념의 전개」, 『美學·藝術學研究』, 19권, 2004, 227-266쪽.

김기수, 「칸트의 미적 상상력에 대한 고찰」, 『美學·藝術學研究』, 31집, 2010, 297-335쪽.

김상현, 「칸트 미학에 있어서 감정과 상상력의 관계」, 『칸트연구』, 17집, 2006, 1-26쪽.

박배형,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 『美學』, 53집, 2008년, 27-59쪽.

## Abstract

# A Study on the Freedom of Imagination

– A Categorical Analysis of the Kantian Concept of Imagination –

Minju, Son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lucidate the significance of the freedom of imagination in Kant's philosophy by categorizing varied roles of imagination, described in a non-systematic manner in his works, in accordance with degrees of freedom. In this respect, what I try to do in this thesis is not only to argue that it is genius that the genuine freedom of imagination plays in, but also to assert that the aim of *Critique of the power of Judgment*, which is to find a way to interconnect the intelligible world with the sensible world, is accomplished by genius that exhibits intellectual ideas in the sensible world.

According to Kant, imagination is the faculty for representing an object even without its presence in intuition, and it is classified as a cognitive faculty along with sensibility, understanding, reason, and the power of judgment. As a cognitive faculty, imagination can set a condition of *a priori* cognition by relating understanding to sensibility, judge of the beautiful in a

free play with the understanding, and involve in the judging of the sublime as well as in genius activities by relating to reason. Although imagination is an indispensable factor in such activities, there is not a theory of imagination within Kant's critical philosophy. It is because imagination does not have its own *a priori* principle due to not being legislative for itself. For this reason, any analytic studies of imagination do not meet the project of critical philosophy dealing with the *a priori* modes of our cognition of objects.

Because of the absence of an *a priori* principle, however, the active area of imagination is not limited to the sensible world (to which the domain of understanding is limited) and to the supersensible world (to which that of reason is limited to). Since imagination is a faculty of intuition as well as sensibility and thereby gets the material for its images from the senses, it starts at the boundary of the sensible world. In addition, imagination may remain in the phenomenal world by corresponding to concepts of understanding, sometimes look beyond the bounds of experience in an effort to present concepts of reason, and sometimes play across the boundary of experience by producing images without relating to concepts of understanding or those of reason. In this regard, this thesis identifies the nature of imagination as freedom based on the absence of an *a priori* principle, and then categorizes the manifold imagination as reproductive, transcendental, aesthetic, and fantastic imagination according to degrees of how freely imagination exercises. By doing so, I try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Kantian concept of imagination.

Reproductive imagination is the ability to represent objects in accordance with laws of association, namely those of empirical, and it yields empirical

cognition. As it ends up in replicating empirical representations and is not spontaneous, that is the most restrained type of imagination. Transcendental imagination is the ability to synthesize intuition *a priori* so as to conform to pure concepts of understanding, and yields *a priori* cognition by mediating between sensibility and understanding. Unlike reproductive imagination built on experience, the transcendental imagination is an act of spontaneity as it determines the form of sense *a priori*. Nevertheless, the transcendental imagination doesn't manifest the freedom of imagination as it conforms to pure concepts of understanding and thereby is regulated by lawfulness of the understanding. Aesthetic imagination constituting taste, sublime, genius is productive and self-active, and it lies in lawful relations to reason as well as understanding. As it apprehends and synthesizes intuition freely from the restraint of concepts of understanding, aesthetic imagination is freer than transcendental one. However it has not enjoyed freedom solely in terms of requiring any relationship with other cognitive faculties. Fantastic imagination freely and solely produces a representation without any regulation. Not only does the fantastic imagination stay within the boundary of the sensible world, but in its activity, no rules can be found and thereby the product is likely to be unnatural, distorted like an fantasy.

The fantastic imagination where freedom of imagination is manifested limitlessly is not positively depicted in critical philosophy. If only a fantastic imagination plays solely, the product does not associated with any concepts or ideas, so it doesn't carry with it an universality. Insofar as imagination is the cognitive faculty to ensure universality, this thesis argues that the genuine freedom of imagination is manifested in genius presenting aesthetic

ideas while going between the sensible world and the intelligible world. The imagination of genius plays with all the sensible representations and represents beyond the boundary of the sensible world just as the fantastic imagination does. However, the imagination of genius concerns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duct to the underlying idea unlike the fantastic imagination proceeding without rules. Therefore, the freedom of imagination manifested in genius succeeds in giving an objective reality to intellectual ideas.

The reason why the freedom of imagination is crucial for critical philosophy is that only imagination that can fill the gap between the sensible world and the supersensible world is able to complete the system of our cognition. Kant divides our cognitive areas into the sensible world on which understanding exercises its legislation and the intelligible world on which reason does. Between these two worlds, there is a gap that reason or understanding itself cannot go beyond, hence the cognitive system should be unified in order to complete the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such unification is realized through the imagination of genius which starts from the sensible world and approximates intellectual ideas lying beyond the world.

In short, the freedom of imagination is not only the identity of imagination, but also the grounds for genius to interconnect the sensible world and the intelligible world, which is the task of Critique of the power of Judgment. This freedom is possible due to the absence of an *a priori* principle in imagination. By focusing on freedom of imagination and analyzing the diverse aspects of imagination, this thesis will make it clear

that the concept of imagination being fragmentarily described in Kant's critical philosophy is coherent, and will clarify the significance of imagination for the project of critical philosophy.

Keywords : Kant, imagination, freedom, genius, present intelligible ideas, the sensible world, the intelligible world

Student Number : 2013–22792